

研究報告  
1989. 3 183

# 農家의 中長期金融 資金 需要分析

徐 鍾 赫(研究委員)

朴 成 在(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 농가의 중장기금융 자금 수요분석

### 요 약

상업적 농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의 고정자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투하된 고정자본은 여러 생산기간에 걸쳐 생산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固定資本投資에 이용되는 자금은 그 자본의 회임기간에 상응하는 中長期性 자금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그동안 농가에 공급되어 온 중장기성 자금은 거의가 정부의 지원에 의한 政策資金이었으며, 그 자금규모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농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이용된 자금 가운데는 적절치 못한 短期性 資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자금의 공급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지배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중장기 자금의 需給不均衡이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이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응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중장기 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한으로 정책결정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이 부문에 대한 현단계의 연구수준을 정리하고 농가의 부문별 중장기 자금 수요 현황과 중장기 자금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농가의 중장기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함으로써 중장기 자금 공급과 관련된 제반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本研究에 이용된 기본적인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農林水產部의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에 발표된 1964~1987년까지의 시계열 자

료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도 충남·경북지역의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390호)의 농가소득 및 투자 등에 대한 기초자료이다. 이외에 농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농업금융통계에 대한 각종 자료가 이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농가의 자금운용표를 이용한 자산운용분석과 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차입자금 수요함수와 자산배분모형의 추정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이것이 갖는 정책적인 함축성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총고정자산 스톡은 1987년 말 현재 약 52조 5천억원(경상가격)으로 추산된다. 과거 25년간(62~87)의 총고정자산 증가율 1980년 복변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4.5%씩 증가한 셈인데 1970년대에 특히 급신장(연평균 8.4%)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연평균 5.0%씩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중 가장 빠른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대농구이며, 그 다음이 대동풀, 건물 순이었다.

2. 농가가 활용하는 고정자산(소유 및 임차 고정자산)의 源泉別 구성을 보면 상속 및 증여에 의한 것이 약 37%로 가장 높고, 財政部門支援에 의한 것이 약 27%, 자기자본의 축적에 의한 것이 약 18% 정도였다. 반면 他人所有分(賃借地 및 고정자산 부채)은 약 18%인데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 농가의 固定資產投資에 대한 제도금융의 기여도는 1980년대초까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제외한 農業固定資本 形成에 대한 제도금융 공급액의 비율은 1965년의 0.2%에서 1980년에 40.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5년엔 20.0%까지 감소하였다.

4.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자금 공급을 거시적으로 보면 '80년 이후 연평균 9.0%씩 증가하여 1987년 중에는 약 2,969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었다(순공급액기준). 이는 '87년도 중 농가 총 조투자액 2조 6,755억원의 약 1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농가는 연간 총투자액(조투자)의 약 70%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차입자금중 정책금융의 비중은 약 33%

에 불과한 실정이다.

5. 농가조사에 의한 미시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정자산 투자재원의 약 70 %가 자기자금이고, 30 %정도가 외부자금으로 나타났다. 즉, 金融資金은 고정자산 투자액의 1 / 3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이 금융자금중 약 30 %만이 중장기성 제도금융으로 충족되며, 나머지는 단기성 제도금융이 45 %, 私金融이 2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금의 混用은 평균 부담이율을 높여 경영수지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각 자금의 상환기간 차이로 농가의 자금운용을 꼽박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평균 농업자본 수익률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최근의 농업 여건에서 볼 때 농가의 합리적 자금이용과 채산성 개선을 위한 저리 중장기자금의 공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농가의 중장기 자본투자를 위한 수요가격 즉 투자자본의 평균 수익률(농가보유 고정자산 총액에 대한 평균자본 수익률로 계측)은 '65년이후 매년 감소하여 '70~'73년에는 연평균 15.4 %~19.9 %, '78~'80년에는 6.9 %~9.3 %, 그리고 '85~'87년에는 7.9 %~8.6 %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농규모별 평균 자본수익률을 보면 1.0ha이하의 영세소농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1.0ha미만의 경우 전체농가의 약 55 %가 자본수익률 5.0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1.0ha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농가의 약 48 %가 자본수익률 10.0 % 이상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자본 수익률도 전자가 약 6 %, 그리고 후자가 약 8 % 수준이었다.

7. 한편 중장기 자본투자를 위한 자본의 공급가격 즉 투하자본중 타인자본의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연리 12.5 %(1987년 농가조사 결과)로서 전체 농가의 평균자본수익률 연 7.9 %보다 4.6 %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총 투하자본에서 자기자본 부문의 기회비용(상호금융 1년이상 정기예탁금 금리 11.0 % 기준 적용) 까지 감안한 투자자본 전체의 평균 자금이용 비용은 연 11.5 %로서 이것 역시 자본의 평균수익률 연 7.9 %보다 3.6 %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별 타인자본에 대한 평균 지불이자율을 보면 계층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영세농(0.5ha미만)의 연 13.5 %와 1.0~1.5ha 계층의 소농이 연 16.4 %로서 2.0ha이상 대농계층의 연 11.5 %보다

## IV

약간 높았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총투자자본의 평균 조달비용을 보면 계층간의 차이는 더욱 작아 전계층이 11.0~12.2%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8.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전년도 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아 증가하며 농가경제잉여의 변화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또 중장기 정책자금의 실질금리나 전년말 부채 수준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資產配分模型分析(Portfolio balance approach)으로는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가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에는 負의 영향을 받고 중장기자금의 공급액과 연관 고정자산 스톡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중장기금융 수요는 농가의 농업에 대한 投資意慾이나 낮은 농업자본수익률을 감안할 때 신규투자를 위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에 대한 정책자금의 공급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潛在需要는 크다 할 수 있으며 연간 조공급액 기준 약 9,95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농가가 고정자산 투자에 이용한 단기성 자금의 대체와 신규투자에 따른 수요, 그리고 비농민 소유 토지의 自作地化를 위한 자금공급의 측면에서 중장기 제도금융의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고 이자율을 인하 시켜 농가의 수지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자금공급의 확대와 금리인하는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 부채누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나 기존자료의 분석 결과 고정자산용 부채의 규모에 대한 政策資金 供給量 및 利子率의 탄성이 낮은 것으로 볼 때(각각 0.13과 0.03)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머리말

전통적인 半自給的 農業 형태에서 商業農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농가의 증장기 금융자금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畜產과 果樹·菜蔬의 生產擴大를 위한 시설투자는 물론 農業機械化를 위한 投資가 商業農化가 빨리 진행된 1980 年代에 크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자본지출 증대에 대응하여 中長期 政策資金의 공급을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農家の 固定資產投資재원은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만으로 충족되지 못했다. 1960 ~ 70 년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政府의 金融지원은 輸出產業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업부문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농어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농가의 中長期 투자에 고율의 사채 및 상호금융자금이 약 70 %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中長期 投資에 대한 평균자본수익률이 약 7.9 %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해외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農家の 자본수익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하에서 본연구원은 현재 농가의 증장기 金融資金에 대한 수요는 어떠하며 政策金融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와 시간의 제약상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구조 조정에 필요한 資金의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本報告書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담당자들의 견해로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며, 아무쪼록 本研究結果가 정책 당국에 의해 유용하게 이용되기를 바란다.

1989. 4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 目 次

## 第1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	1
2. 資料 및 分析方法.....	4
3. 報告書의 構成 .....	5

## 第2章 農業發展과 農業金融

1. 農業發展과 農業金融의 意義 .....	6
2. 農家の 固定資產 形成과 農業金融의 役割 .....	11

## 第3章 中長期 金融需要의 理論的 檢討

1. 中長期 資金의 性格과 區分 .....	15
2. 中長期 金融需要의 發生 .....	20
3. 農家の 資產配分 均衡과 中長期 資金需要..	23
4. 投資資本의 限界効率과 資金需要 .....	24
5. 해롤드(Harold)의 成長模型과 金融需要 .....	26
6. 資金의 需給曲線과 需要量 測定 .....	29

## 第4章 中長期 農業金融市場의 構造分析

1.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需要變化 .....	32
2. 中長期 制度金融 供給의 變化推移 .....	37
3. 農家の 中長期 投資와 政策資金의 需要充足度 .....	39
4. 農業資本 收益率과 金利 .....	40
5. 中長期 資金의 融資期間 .....	47

**第5章 農家の 固定資産投資와 資金調達**

1. 農家の 固定資産의 變化 .....	49
2. 農家の 固定資産 投資行態 .....	54
3. 固定資産 投資財源의 調達 .....	73

**第6章 中長期 金融需要函數의 推定과 展望**

1. 總借入 需要函數의 推定 .....	77
2. 資產均衡模型과 金融資金 需要 .....	82
3. 中長期 政策金融의 需要展望 .....	92

第7章 要約 및 結論 .....	98
-------------------	----

# 表 目 次

## 第2章

表 2- 1 源泉別 農家 固定資産形成 推定(經常價格) .....	12
表 2- 2 固定資産 投資와 制度金融의 役割(經常價格) .....	14

## 第3章

表 3- 1 農家 利用資金의 用途에 따른 區分 .....	15
表 3- 2 農業資金의 期間別 區分 .....	19
表 3- 3 農家の 現金흐름表 .....	21

## 第4章

表 4- 1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需給變動 (1980年 不變價格) .....	35
表 4- 2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供給額(經常價格, 粗供給額 基準) .....	37
表 4- 3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供給額(1980年 不變價格) .....	38
表 4- 4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年末殘額(經常價格) .....	38
表 4- 5 對農民 制度 中長期資金 年末殘額(1980年 不變價格) .....	39
表 4- 6 農家の 固定資産 投資 財源中 金融資金 構成 .....	39
表 4- 7 固定資産 投資財源中 金融資金의 構成(農家單位) .....	40
表 4- 8 平均農業資本 收益率과 農業資金 金利 .....	43
表 4- 9 農家の 資本規模과 資本收益率 分布 .....	44
表 4-10 耕地規模別 農家の 資本收益率 分布 .....	45
表 4-11 耕地規模別 農家の 固定資産 投資量 위한 借入資本의 平均利子 負擔率 .....	46
表 4-12 耕地規模別 農家の 資本供給費用 .....	46
表 4-13 主要國의 農業政策資金 融資期間 .....	48

## 第5章

表 5- 1 農家資產의 增加推移(1980 年 不變價格).....	51
表 5- 2 農家資產의 構成變化 .....	52
表 5- 3 全國農家の 固定資產 增加推移(1980 年 不變價格) .....	53
表 5- 4 農家固定資產의 構成變化 .....	54
表 5- 5 農家의 固定資產 粗投資와 農家經濟剩餘(1980年 不變價格) .....	58
表 5- 6 農家의 固定資產 投資行態(戶當平均) .....	60
表 5- 7 農家의 固定資產 粗投資(全國總計) .....	60
表 5- 8 耕地規模別 農業資本의 純收益率.....	62
表 5- 9 農家階層別 年間 固定資產 粗投資.....	62
表 5-10 農家階層別 固定資產 部門別 投資構成 變化 .....	64
表 5-11 土地所有關係別 農家의 主要 經濟指標 .....	67
表 5-12 土地所有關係別 固定資產 粗投資 比較, 1987.....	68
表 5-13 農家經營主의 年齡別 分布變化, 1982~ 87.....	70
表 5-14 經營主 年齡別 主要 經濟指標 .....	71
表 5-15 經營主 年齡別 固定資產 投資, 1987.....	72
表 5-16 中小企業의 設備投資 財源構成, 1986.....	74
表 5-17 耕地規模別 農家의 固定資產 投資財源 構成 .....	75
表 5-18 經營主 年齡別 固定資本 投資財源 構成 .....	75
表 5-19 土地所有關係別 農家의 投資財源 構成 .....	75

## 第6章

表 6- 1 中長期 純借入資金 需要에 미치는 要因의 回歸分析 結果 .....	81
表 6- 2 金融資產部門 需要函數 推定結果 .....	90
表 6- 3 固定資產部門 需要函數 推定結果 .....	90
表 6- 4 固定資產負債 需要函數 推定結果 .....	90
表 6- 5 短期性負債 需要函數 推定結果 .....	91
表 6- 6 農業의 將來性에 대한 農民反應의 變化 .....	93
表 6- 7 農業部門의 中長期 政策金融의 需要推定(1988 年 基準) .....	96

## 圖 目 次

### 第 3 章

圖 3-1 資本의 限界効率과 適定資本 스튜	24
圖 3-2 資本의 限界効率과 適定投資水準	25
圖 3-3 中長期 投資에 대한 資金의 需要點과 供給線	30

### 第 4 章

圖 4-1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需要變動(1980年 不變價格)	34
圖 4-2 農業資金 金利와 平均農業資本 收益率	42

### 第 5 章

圖 5-1 農家の 固定資產 粗投資와 農家經濟剩餘	57
----------------------------	----

# 第 1 章

## 序 論

### 1. 問題의 提起

1970년대 중반 이후 농가의 자본지출은 현저히 증가되어 왔다. 과수, 채소, 축산을 중심으로 진행된 商業的 農業化와 농업노동력 유출에 따른 農業機械化가 이러한 자본지출의 증대를 불러 온 직접적 계기였다. 한편 농촌생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住宅改良事業 역시 농가의 자본지출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비록 소비지출로 간주되지만 人的資本(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인 교육비지출 역시 같은 시기에 급증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半自給的 單純再生產形態를 면하지 못해 왔던 소농경제로서는 이러한 資本增投의 요구를 스스로 감당할만한 資金餘裕가 없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는 농가의 고정자산 구입비와 人的資本에 대한 지출증대는 외부자금의 차입, 즉 부채의 누증으로 연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자본지출 증대에 대응 또는 이를 적극 유도하는 측면에서 中長期 政策資金의 공급을 확대시켜 왔다. 농기계화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農

漁家所得 増大事業으로 경제작목 확대, 대동물 입식이 적극 추진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선 대동물 입식과 경제작목의 확대를 병행시킨 複合營農事業이 추진되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農村住宅改良事業도 모두 정책자금의 지원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재원은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이나 自己資金만으로 충족되지 못했다. 단기성 영농자금, 상호금융, 심지어 高利私債가 중요 재원으로 이용되었다. 원래 고정자본은 단일 생산기간에 그 자본가치가 모두 소모되지 않고 여러 생산기간에 걸쳐 생산물에 그 가치를 이전하는 자본을 가리킨다. 즉, 자본의 회임기간이 長期이다. 따라서 고정자본 투자에 외부자금을 이용할 경우 상환기간이 자본회임기간(자산의 耐久年限)에 맞는 中長期性 資金이 필요하다.

고정자본 투자에 단기성 자금을 사용하면 투하된 資本價值를 모두 회수하기 전에 차입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농가의 자금운용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자본회임기간 만큼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만큼 불필요한 金融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舊資金의 상환과 신규자금의 차입(즉, 단순한 자금의 代贊)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필요한 運轉資金의 투입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받는 심리적 압박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점은 현재의 부채문제를 단순히 부채의 절대규모나 借入金依存度(총부채/총자산)와 같은 피상적 지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이자율이 높은 私債나相互金融資金을 고정자본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농업 수익률을 더욱 불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동안 정부의 中長期性 資金支援이 농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규모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에 대한 자금의 만성적 超過需要가 상존해 왔다. 이 때문에 중장기 정책자금의 공급은 需要把握의 문제는 거의 도외시된 채 가용재원의 확보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공급액의 증대는 항상 바람직한 것으로만 여기는 안이한 인식 또한 없지 않았다. 바꾸어 말해 중장기 정책자금의 공급규모 결정도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3~85년간의 극심한 한우파동은 소入殖資金의 무계획적 방출이 깊이 관련되었음을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자금의 수요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뤄온 연구가 없지 않으나 中長期資金의 需要를 농가의 고정자본투자와 연결시켜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농가수준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이를 위한 금융자금의 조달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운용에서 중장기성 금융자금의 수요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 분석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발전해야 할 방향과 연관시켜 볼 때 그 의의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위에 바탕을 둔 자본의 집약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후된 농업부문의 발전은 기술과 자본의 집약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내적으로는 농민의 소득문제나 국내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은 물론 앞으로 더욱 거세질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분석은 이상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부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특수한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정책부문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가수준에서 투자자금의 수익률과 금융자금의 수요액은 어떠한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종체적인 농가의 고정자산투자와 이에 관련된 중장기 자금의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농가의 고정자산은 크게 보아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물, 대식물로 구분되지만 그 다음 단계의 細目別 分類로 내려가면 구체적 분석이 매우 어렵게 된다. 보다 바람직한 분석이라면 특정부문 하나

하나에 대해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좀더 시간을 갖고 다뤄야 할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못하였다.

## 2. 資料 및 分析方法

### 가. 資料

본 연구에 이용된 기본적인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에 발표된 1964~87년까지의 시계열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도 충남·경북지역의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표본농가(390호)의 기초자료이다. 이외에 농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각종 자료가 이용되었다.

충청남도, 경상북도 표본농가에 대한 자료는 정규조사에서 파악되는 부분 외에 농가의 자산투자와 관련된 財源과 그 種類에 대한 보완조사로 얻어졌다. 보완조사는 표본농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수산통계출장소의 농가경제담당 조사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사표의 설계는 본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 나. 分析方法

本研究에 이용된 분석방법은 크게 농가의 자금운용분석과 차입금 수요함수분석 및 농가의 자산배분 모형의 분석이다. 농가의 자금운용 분석은 주로 농가의 투자와 재원조달, 자산의 구조변화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농가의 중장기금융수요는 流量(flow)으로서의 수요(즉, 차입수요)와 賯量(stock)으로서의 수요(즉, 부채 또는 연말 수요잔액)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차입금 수요함수와 자산배분함수의 추정이 있었다. 차입금에 대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단순회귀분석이, 그리고 자산배분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방법이 채택되었다.

### 3.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정리되었다. 제 2 장에서는 농업발전에서 금융이 갖는 역할과 특히,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그동안 금융공급이 농업부문의 자본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중장기 금융자금과 단기 금융자금의 구분,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 현상을 설명하는 제이론을 검토하고, 실제 금융수요를 계측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농업부문의 중장기 금융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거시적으로 그동안 중장기 자금의 공급규모는 어떠하였으며, 공급된 자금의 가격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농업부문 전체의 중장기 금융수요 규모와 이 때 농가가 이용한 금융자금의 가격, 즉 평균이용금리 및 수요가격 즉 투자의 자본수익률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제 5 장에서는 농가의 중장기 금융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가의 투자활동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그동안 농가의 투자를 자산스톡과 연간 투자(순투자 및 조투자)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제 6 장에서는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함수를 계측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 중장기 정책금융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시산하였다.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함수의 계측을 위해서는 순차입함수의 계측과 농가의 자산배분모형의 계측을 시도함으로써 예금 및 대출이자율과 중장기 자금의 수요규모와의 관계 및 여러 자산형태 간의 대체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 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와 같은 분석결과가 가져다 주는 정책적인 함축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第 2 章

### 農業發展과 農業金融

#### 1. 農業發展과 農業金融의 意義

농업발전과 농업금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첫째는, 1960~70년대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의 기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농업부문에 한정시켜 적용해 보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에 있어 금융부문의 기능이 단순히 實物部門의 필요에 의해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 (需要追從 : demand-fallowing) 이냐 아니면 금융발전이 실물부문의 발전을 선도해 가느냐 (供給先導 : supply-leading) 하는 논의에서 본 농업금융의 평가문제이다. 둘째는, T.W.Schultz에 의해 정리된 농업부문의 資本制限論 (capital - rationing) 과 관련지어 농업금융의 의의를 생각해보는 측면이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농업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또는 政策金融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는 측면이다. 말하자면 農業金融의 特殊性이 강조되는 측면이다.

### 가. 經濟發展에 있어서 金融의 役割論과 農業金融

이미 과거 독일 역사학파의 經濟發展 段階說에서도 시사되었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부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어간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다만 實物部門의 菲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뿐 금융부문의 발전이 전체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 종래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金融部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 1960년대의 골드스미드 (R.W Goldsmith) 아래 패트릭 (H.T.Patrick), 쇼우 (E.S.Shaw), 맥ки논 (R. I. Mckinnon) 등의 연구들이다.

이들의 연구단계나 각기 주장하는 바는 차이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金融關聯指標들이 상승하는 金融深化現象이 나타난다 (Goldsmith. 1969).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실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여 금융이 발전하는 需要追從 (demand following)의 측면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에 앞서 금융기관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발시켜 나가는 供給先導 (supply-leading)의 측면이 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서로 별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작용하나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후자, 즉 공급선도적 역할이 강하다. 말하자면 공급선도적 금융이 습페터류의 革新金融 (innovation financing) 性格을 띠어 實物投資를 유발한다 (Patrick, 1966).

저개발경제일수록 금융발전은 陽의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저축이 증대되며, 자본시장의 통합을 통해 불리한 투자를 도태시키고 유리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投資效果를 가져온다 (Shaw. 1973).

저개발경제의 지배적인 경제주체는 저축과 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家計企業 (firm - household)이다. 이들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탓으로 外部金融의 기회를 얻지 못해 자기자금으로 거의 모든 투자지출을 행한다. 따라서 新規投資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貨幣資本의 內部蓄積期間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정통화폐이론에서처럼 화폐가 자본축적을 위해 아무런 기여를 않고 단순히 去來的 目的 때문에 수요되는 것만이 아니라 축적을 위해 수요되기도 한다 (Mckinnon, 1973).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實物經濟에 대해 金融部門이 보다 능동적으로 가능한다는데 촛점이 있다. 또 같은 經濟內에서의 부문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됨을 강조한다. 즉, 농업부문처럼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산업에서 금융공급의 先導的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他產業部門에 비해 경제발전의 정도가 낫다. 뿐만 아니라 농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金融業의 자생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다. 따라서 농업금융을 수요추종적인 측면에서 시장기구에만 맡겨두어서는 농업발전을 위한 금융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의도적인 금융기관의 창출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해 가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農業金融論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였다. 즉, 금융공급의 선도적 역할론은 농업부문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하겠다. 그러나 금융공급기능의 개선만으로 농업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실제로 저개발국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지나친 資金供給을 강조한 결과 자원낭비만 초래한 사례는 많다. 또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의 소파등은 무계획적인 소入殖資金의 확대공급이 주요인인 엮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 나. 資本制限論과 農業金融

농업부문 투자가 이론적으로 적정한 선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즉, 過少投資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위험 (risk)이나 불확실성 (uncertainty)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보다 확실한 선까지만 투자하려는 농민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투자자인 농민 스스로가 투자를 제한하는 內的 資本制限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농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은 상당히 危險度가 높은 산업이며, 농가경제 역시 매우 취약한 財務基盤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수요자인 농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투자자인 농민은 충분히 안정적인 선에서 투자하려 해도 外部金融을 이용할 수 없어 투자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外的 資本制限이라 불려진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이같은 内外의 資本制限現象은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부문의 자원배분이 최적상태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그 결과 농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농업의 생산력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농업금융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 매카니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도적인政策介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農業金融과 政策金融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 商業 金融機關이 농업금융을 담당하기에는 제약요소가 많다. 첫째,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信用力이 낮고 둘째, 消費와 生產이 미분리 되어 자칫하면 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고 소비자금화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상환가능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셋째, 단위당 대출규모는 영세한데 대출전수는 많아 金融費用이 많이 든다. 넷째, 농업생산은 자연력에 의존하는바 크므로 그만큼 위험이 많으며, 다섯째, 생산기간이 길어 자금회전율이 낮다. 여섯째, 자금수요에 심한 계절성이 존재하여 일시방출, 집중 회수가 불가피하며 그 사이 자금부족과 자금유휴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금융의 3원칙인 安全性, 收益性, 流動性에서 보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 농업 금융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에서는 근대적인 상업금융기관의 發展을 보기 힘들고 前近代의인 高利貸金業이나 商人前貸資本이 지배해 왔다.

小農의 노임착취적 高利貸資本에 맡겨진 농업금융은 농업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이에 대한 농민들 스스로의 自救努力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組合金融

이다.<sup>1)</sup> 그러나 조합금융 역시 民間金融機關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익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존립할 수 없다. 또 조합금융만으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공급할 수는 없다. 특히, 농업부문의 성격상 자본회임기간이 매우 긴 고정자본 투자부문이 많다. 이러한 용도의 자금은 長期融資되어야 한다. 조합금융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農業政策金融은 이러한 諸要素를 감안하여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유도해가는 목적을 존립근거로 한다. 즉, ‘일반 상업금융을 質的 또는 量的으로 보완함으로써 농업부문에의 금융공급을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政策手段’이 농업정책금융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농업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市場機構의 自己調節作用에 의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농업금융시장에의 의도적 개입을 통하여 市場失敗를 보완함으로써 농업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當爲論이 성립되며, 이의 구체적 표현이 정책금융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實物部門과의 일정한 관계하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즉,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우리 농업의 危機狀況을 금융지원을 통해 극복하려는 듯한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금융지원을 통한 농업문제의 해결방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길일 뿐이다. 오히려 금융지원의 효율성은 實物部門의 수지조전에 의존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1) 농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후진국의 경우 정부주도에 의해 대부분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은 창설주체에 관계없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 2. 農家의 固定資產 形成과 農業金融의 役割

### 가. 農家活用 固定資產 形成의 財源

농업발전과 농업금융과의 관계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타산업부문에 비해 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된다. 또 그것은 농업부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의 의도적 개입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경우 농업고정자본형성에 財政部門의 기여는 어느 정도이며, 金融部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이정환(1987)은 농업부문 총자본스톡을 農地改良資本, 농용건물, 대농구, 대동식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농지개량자본스톡은 지금까지 대부분 財政投融資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민간부문을 제외한 투자액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이를 재정부문으로 계상하였다. 농용건물은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하였으며, 대농구와 대동물은 전국 총보유대수(두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하여 이상을 농가자본스톡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추산한 결과 1985년 현재 농업부문의 經常總資本스톡은 약 20조 2천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 중 74%인 약 14조 9천 5백 억원이 재정부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재정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가의 투자능력을 넘는 農業用水開發, 耕地整理事業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지개량자본스톡의 추계방법은 투자액 중심으로 계산하였으나 나머지 농가자본은 市場評價額 중심으로 되어 있어 총자본스톡의 계산상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는 농가가 활용하는 자본스톡을 시장평가액 중심으로 다시 보고자 한다. 농지개량자본은 성격상 시장평가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추산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農地의 市場評價額을 자본스톡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농지에 직접 투하된 경지정리 등과 같은 개량자본액은 반영되겠지만 저수지, 판매수로, 농로 등과 같은 下

部構造施設(infrastructure)은 모두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부구조물의 이용가능성이 農地價에 반영되어 時價가 형성된다고 볼 때 이 방법 역시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대농구, 대동식물은 「농가경제조사」에 나타난 호당 평가액을 총농가 호수로 곱하여 추산하였다. 이때 건물에는 앞의 연구에서는 제외한 주택부분 까지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주택 역시 農用으로 쓰이는 부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초점이 농업만이 아닌 농가의 중장기 자금수요에 맞추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가가 활용하는 경상총자본스톡을 추산한 결과 1985년 현재 약 5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상속 증여에 의한 것이 약 37%, 財政部門支援分이 27%, 자기자본축적분이 18%, 비농민소유자산(토지)이 15% 정도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타인자금을 이용하여 고정자산을 구입한 결과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약 3% 정도로 추산된다(表 2-1).

따라서 농가가 이용하는 고정자산중 자기소유가 아닌 부분은 非農民 소유농지와 고정자산부채분인 18%가 된다. 그런데 이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짧은 2년간인데도 1983년의 15%에서 1985년에 18%로 3%포인

表 2-1 源泉別 農家固定資產形成 推定(經常價格)

단위 : 억 원, %

구 分	1983	1984	1985
농가활용총고정자산 <sup>1)</sup>	499,946 (100.0)	531,186 (100.0)	560,688 (100.0)
재 정 부 문 지 원 <sup>2)</sup>	121,016 ( 24.2)	138,088 ( 26.0)	149,513 ( 26.7)
고 정 자 산 부 채 <sup>1)</sup>	13,227 ( 2.6)	18,561 ( 3.5)	18,813 ( 3.4)
상 속 · 증 여 <sup>3)</sup>	182,030 ( 36.4)	198,980 ( 37.5)	206,947 ( 36.9)
비농민소유토지 <sup>4)</sup>	58,894 ( 11.8)	69,220 ( 13.0)	82,840 ( 14.8)
자 기 자 본 축 적	124,779 ( 25.0)	106,337 ( 20.0)	102,575 ( 18.3)

1) 농가소유 고정자산+비농민소유 토지평가액

2) 이정환의 「농업부문의 투용자 동향과 효과」, KREI, 1987. 193

3) 최양부의 「농가경제의 동태적 변화 분석」, KREI, 1987.

• 총소유 경지의 67.16%로 봄.

4) 1983년 350천ha, 1984년 370천ha, 1985년 413천ha, (김성호, 「농지소유 현황과 개선 방안」, KREI, 1986.)

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비농민 소유농지는 대부분이 도시거주 농촌출신 자녀에게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경영주 연령이 고령인 농가의 대부분이 영농후계자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농지는 대부분 도시자녀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가 자신의 힘이 아닌 외부의 지원에 의해 형성된 고정자산의 또 한 부분이 재정부문지원분이다. 이 역시 2년간에 약 3%포인트 비중증가를 보였다. 농가부문의 고정자산형성에 재정부문의 중요성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부문이 갖는 상대적으로 높은 公共性과 함께 농업부문의 사회간접시설인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농가부문의 고정자산 형성에 금융부문의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고정자산 형성에서 자기자본의 축적분도 전적으로 과거에 지원된 금융지원의 결과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금융부문의 기여는 전체의 약 21.7% ('85년 기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반면 상속·증여나 부채지주의 임대에 의한 부문이 전체의 51.7%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가의 고정자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토지의 세분화를 막는 一子相續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그것이며, 또한 부채지주의 소유농지를 自作地化를 위한 농지구입자금과 같은 금융의 확대는 앞으로 중장기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이다.

#### 나. 農家의 投資와 制度金融의 役割

앞에서 농가가 활용하는 고정자산과 금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농가 이용자산의 형성과 그 소유관계를 어느 일정 시점에서 본 것이다. 이제는 농가가 어느 일정 기간중 직접투자하는 資本중 제도금융의 기여는 어떠한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가가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식물이라는 고정자산투자와 人的投資(Investment for human capital)에 사용한 財源(capital source) 중 制度

金融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다.

다음 <表 2-2>는 농가의 고정자산투자와 人的投資支出과 제도금융의 공급은 어떠한 추이로 증가해 왔으며, 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도금융의 공급액을 모두 農家가 이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농가의 투자액에 대한 금융공급액의 비중이 제도금융의 역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밀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동안의 추세를 본다는 관점에서 간접지표로 사용한 것이다.

농가의 투자액에 대한 제도금융공급액의 비율은 1970년까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매우 급속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투자액에 대한 제도금융의 공급액 비율은 1965년엔 0.2%, 1970년엔 3.2%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엔 40.1%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5년엔 同比率이 20%로 1980년에 비해 20%포인트나 떨어졌다.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한 비율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農業部門 역시 金融深化現象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제도금융이 현실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表 2-2 固定資產投資와 制度金融의 役割(經營價格)

단위 : 억원, %

연 도	농업고정자본 <sup>1)</sup> 형성(A)	토지자산 <sup>2)</sup> 투자(B)	인적투자 <sup>3)</sup> (C)	제도금융 <sup>4)</sup> 공급(D)	$\frac{D}{A}$	$\frac{D}{A+B}$	$\frac{D}{A+B+C}$
1965	243	215	125	0.5	0.2	0.1	0.1
1970	697	356	348	22	3.2	2.1	1.6
1975	2,248	1,033	904	358	15.9	10.9	8.6
1980	9,660	3,458	4,312	3,873	40.1	29.5	22.2
1985	22,942	6,229	11,729	4,596	20.0	15.8	11.2
연평균	65~85	25.5	18.3	25.5	57.8	-	-
증가율	70~85	26.2	21.0	26.4	42.8	-	-
	80~85	18.9	12.5	22.2	3.5	-	-

1) 전물, 대농구, 대동식물의 조 투자합계 (이정환외, 앞의 책)

2), 3)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의 토지구입액과 교육비 지출에 근거하여 작성

4) 농업부문 정책자금 및 금융자금, 상호금융 합계(연간 순공급액 기준)

## 第3章

### 中長期 金融需要의 理論的 檢討

#### 1. 中長期 資金의 性格과 區分

農家가 營農 및 家計消費活動을 위한 외부 자금에 대한 수요는 그 용도에 따라 生産자금과 소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금의 회전기간에 따라서 운영(전) 자금과 固定資金으로 區分할 수 있다.

生産資金과 消費資金의 區分에 대한 기준은 前者가 收益을 위한 生產活動과 관련된 반면 後者는 消費를 통한 効用의 증대와 관련된 점이다. 또한 운영자금과 고정자금의 차이는 投資된 資金으로부터 기대되는 收益 또는 効用이 一生產 또는 消費期間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長期間에 걸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表 3 - 1 農家 利用資金의 用途에 따른 區分

	생 산 자 금	소 비 자 금
운 영 자 금	物財費, 조세공과금 등	식료품비, 광열비, 교제비 등
고 정 자 금	토지, 농용시설, 대동식물 및 대농구비 등	교육, 의료, 건물 및 내구성 소비재구입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농가의 사용자금을 구분하면 〈表 3-1〉과 같다.

家計와 企業이 未分離된 우리 나라 농가에서 자금의 用途에 따른 區分은 사전적으로 용이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區分이 필요한 것은 農家の 中長期資金의 수요가 생산 및 소비부문의 고정자금 필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대출된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리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농가가 이용하고자 하는 자금이 실제 계획된 부문에 投下되었을 때 그 자금의 회수기간과 投資된 자산을 담보물로 확보할 수 있는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농가의 고정자금은 운영자금과 구별된다.

고정자금이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운전자금에 비하여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生產活動을 위한 固定資金은 個別農家の 입장에서 보면 規模의 擴大를 위한 投資增加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비하여 個別單位의 支出金額은 큰 것이 보통이다. 소비자금의 경우에도 내구성소비재의 구입이나 의료 교육비 지출과 같은 人的 資本을 위한 投資는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나 장기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농가의 자금운영 행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여타 가계비용의 지출행태와는 구별된다.

한편 생산자금으로 이용되는 고정자금도 투자대상 고정자산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농가의 고정자산은 크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고정자산과 그렇지 않는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정자산은 토지 및 비육용 가축이 있으며, 감가상각이 필요한 부문은 대농기구, 시설투자, 번식용 가축을 위한 투자나 대식물에 대한 투자가 이에 해당된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정자산은 그렇지 않는 자산과 잠재임차가격(implicit rental price)<sup>1)</sup>의 차이에 의하여 자금의 수요도 다르다. 완전

1) 잠재임차가격은 ① 투자자본의 기회비용, ② 투자자산의 당초구입가격, ③ 감가상각비, ④ 투자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경쟁 하에서 농가의 고정자산을 위한 투자가 농산물가격의 상승과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반면 해당 고정자산의 잠재임차가격과 負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토지와 같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은 투자를 위한 자금의 수요가 다른 자산과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자금 중 장기적인 투자에 이용되는 고정자금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土地는 적당한 관리만 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으나 이의 구입 또는 개량을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他固定資產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長期性 低利資金이 필요하다. 한편 土地資產은 非移動性의 特性을 갖기 때문에 그 自體가 資金의 借入時 담보물로써 이용될 수 있다.

畜舍, 비닐하우스 및 농용창고 등 施設物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고유한 용도와 타용도로서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자금 이용기간이 각각 다르다. 축사의 대부분은 특정 가축의 사육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 기간은 거기에 사육하는 가축에 따라 다르다. 낙농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인 것은 단기성 투자의 성격을 갖는 양돈, 양계 및 비육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채소나 화훼재배를 위한 비닐 하우스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한편 농용창고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농산물을 위한 투자자본의 회수기간과 연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기간은 농업 일반의 고정자산 투자의 회임기간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성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축사, 비닐하우스 및 농용창고 등 농용시설물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단기 또는 중장기로 구분기는 어렵고 어떤 형태의 농업생산에 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용시설의 이용이 주로 축산이나 원예용에 이용되며, 이를 농업의 투자 회임기간이 대부분 2~8년의 중기성이므로 이들을 위한 자금이용 기간도 장기

성 보다는 중기성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기계화의 경향도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기계의 내구성은 토지와는 달리 장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회수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기계 투자를 위한 대출자금의 상환기간도 중기성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농기계의 대부분이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모가 심하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담보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동물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 기간도 다르다. 한우의 경우 과거와 같이 사육의 주목적이 역용인 경우에는 투자의 회임기간이 5년 이상의 중기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한우 사육의 목적이 비육의 경우에는 투자의 회임기간이 2년 내외의 단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양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낙농이나 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사육인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 기간은 3~10년의 중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농가에서 대식물에 대한 투자는 주로 과수원 및 상전 등의 조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투자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조성된 수원지에서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의 모든 비용은 고정투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수원지 조성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는 물론 비료, 농약 및 인건비가 자산의 형성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단기성 자금으로는 부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수나 상전이 투자 시작후 3~5년이 지나야 첫수확이 가능하므로 이들 투자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기간은 5~10년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입자금의 수요기간도 중기성 자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農家가 利用하고 있는 借入資金의 中長期 및 短期의 區分은 자금의 수요자인 농가와 공급자인 금융기관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農家의 입장에서는 投資資金의 회임기간과 農家 内部의 借入 資金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에 따라 중장기 또는 단기성 자금으로 구분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로 投資資金의 회 임 기간을 고려

表 3-2 農業資金의 期間別 區分

구 분	기 간	자 금 종 류
단기자금	3년 이내	단기농사자금, 일반대출자금, 농축산물 수출준비자금, 농기업자금, 상호금융, 사채
중기자금	3 ~ 1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자금, 산림개발기금, 금융중기자금, 국민투자기금, 농업개발자금 종합개발자금, 농기업자금(시설), 축산진흥기금 차관자금
장기자금	10년 이상	장기수리자금, 농지조성자금, 농촌주택자금

자료 : 농협중앙회, 「農業金融의 理論과 實際」, 1989에서 작성.

하여 자금이용의 기간을 구분, 대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금의 元金回收 期間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자금을 短期, 3 ~ 10년은 中期, 그리고 10년 이상은 長期資金으로 區分하고 있다(表 2-4 참조). 短期資金과 中期資金의 區분이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하겠다. 즉, 短期資金의 용도가 1 生產 期間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중에 발생하는 운영자금의 조달이 주 목적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농업생산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단기와 중장기의 區分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中長期 金融需要의 發生

農家の 中長期借入資金에 대한 需要是 1차적으로 農家の 投資行爲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農家の 中長期投資는 단기적인 영농활동과는 달리 投下된 자본의 回收가 장기에 걸쳐 실현되고 또한 일시에 많은 資金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이를 위한 자금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요구된다.

農家の 영농활동중 投下된 資金의 회수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토지의 구입이나 개량비용, 가축의 구입, 농용시설, 대농기구 및 대식물의 구입비용 등과 같은 고정자산 부문의 투자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농업을 위한 생산수단의 획득이나 개량을 통하여 영농규모를 확대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비료, 농약 또는 구입노동을 위한 인건비의 지출은 생산의 완료와 함께 쉽게 회수가 가능한 비용으로서 매생산기간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投資에 따른 外部로부터의 借入金에 대한 수요는 投資에 필요한 자금소요액과 농가의 자기자금 조달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農家의 中長期 借入資金의 需要에 대한 보다 깊은 理解를 위해서는 농가의 투자 및 자기자금의 조달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자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農家의 資金運用分析은 一定期間中에 農家에서 일어나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즉, 農家에流入된 자금의 원천은 무엇이고 또한流入된 자금은 어떠한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자금운용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농가의 借入金發生이 어떠한 要因에 의하여 나타나는지를 자금흐름의 경로와 연결시킴으로써 借入金의 發生이 經常部門(農家所得 및 家計費支出)의 적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固定資產 또는 金融資產(예금)의 純增加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 줄 수 있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농가경제의 자금운용 분석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한데 묶어 經常部門으로 하고, 資本形成을 위한 調達과 運用을 資本部門, 그리고 農家가 保有하고 있는 現金 및 準現金, 借入金 등을 묶어 金融部門으로 나누어 分析하는 것이 편리하다. 〈表 3-3〉은 農家の 資金흐름을 各 部門으로 區分하고 各 部門間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경상부문에 있어서 자금의 조달원은 크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나누고 한편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가계지출, 조세공과 및 分稼支出에 利用되며 조달자금과 운용자금의 차액은 경상잉여가 되며 당기의 純貯蓄이 된다.

이와 같은 경상부문에서의 잉여에 의한 純貯蓄은 資本部門의 重要한 資

表 3-3 農家の 現金흐름표

	調 達	運 用
1. 組常計定	現金農業粗收入 現金農外粗收入	現金農業經營費 現金農外支出 現金家計費 現金租稅公課金 現金分家支出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現金經常剩餘</div>
2. 資本計定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現金純貯蓄</div> 固定資產賣却現金收入	固定資產購入現金支出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現金資金過不足</div>
3. 金融計定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現金資金剩餘</div> 金融資產引出 現金借入	金融資產購入現金支出 借入金償還現金支出
4. 総合計定	現金純貯蓄 現金借入純增 固定資產賣却現金收入	固定資產投資現金支出 金融資產純增現金支出

金源泉이다. 貯蓄以外의 資本部門에서의 資金源은 減價償却 充當金과 固定資產의 매각이 있다. 한편 농가의 資本部門 資金運用은 固定資本投資(農業生産部門, 家計部門 및 農業外固定資產投資 포함)와 在庫投資로 나눌 수 있다. 資本部門에서의 資金調達과 運用의 差異는 資本部門의 資金

過不足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金融部門과 연결된다.

金融部門에서는 資本部門에서의 資金過不足과 金融負債純增(=借入金)이 자금원이 되며, 운용은 金融資產의 純增(=예저금의 증가)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金融負債의 純增은 負債의 性格에 따라 短期(차입기간 1년 이내) 또는 중장기(차입기간 1년이상)로 区分할 수 있다.

以上에서 農家內部의 資金흐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상부문의 잉여가 반드시 자본부문의 순저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金融資產의 증가(=예저금 증가)이나 고정자본의 投資에 직접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자본부문의 資金過不足은 金融負債의 순증에 의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農家內部에서 위의 세 부분들이 상호관련을 맺으며,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가의 자금운용의 구조로 볼 때 중장기 차입자금의 수요는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각 부문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等式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text{저축액} + \text{단기차입액} + \text{중장기차입액} + \text{고정자산매각액} = \text{고정자산조투자액} + \text{금융자산순증액(예저금)} \quad \dots \quad (1)$$

식 (1)로 부터 당기에 농가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중장기 금융자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text{중장기 차입액} = \text{고정자산조투자액} + \text{금융자산순증액} - (\text{농가의 저축액} + \text{고정자산 매각액} + \text{단기차입액}) \quad \dots \quad (2)$$

위와 같은 농가의 자금흐름을 감안하여 볼 때 농가의 중장기 차입 즉, 자금수요는 당기에 있어서의 농가의 소득과 負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계소비지출과는 正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의 純投資와 正의 관계가 있고, 금융자산(예저금)의 규모와 負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중장기 차입자금(流量으로서의 資金需要 즉, 粗借入 또는 純借入과 賽量으로서의 借入 즉, 負債需要를 모두 포함)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농가의 자산배분에 있어서의 균형조건을 이용한 적정자산배분모형과, 농가의 투자행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차입금수요결정모형, 그리고 농업부문의 성장모형을 기초로 한 거시적인 자금수요분석방법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3. 農家의 資產配分 均衡과 中長期 資金需要

農家의 資產配分 均衡理論에서는 바람직한 農家保有 固定資產의 保有水準과 금융자산의 보유수준간의 균형은 각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 및 비금전적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때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未使用信用(unused credit)이 비금전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가정한다.<sup>2)</sup>

農家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의 선택은 각 자산(고정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의 규모)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금전 및 비금전적 수익과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효용의 극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농가가 예금이나 저금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금융자산 또는 고정자산의 투자나 부채수준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는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자산, 고정자산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금전적 수익(투자수익률) 및 비금전적 수익에 의하여 결정된다.

농가의 중장기 금융 자금의 사용증가가 다른 자산의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은 일찌기 Baker (1968)가 제시한 바 있는 미사용신용(unused credit)이 갖는 유동성제공의 역할에 근거한다. 즉, 농가에서 미사용 신용은 그 자체가 자산은 아니지만 이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다른 자산

---

2) 이에 대해서는 Baker (1968)의 구체적인 연구가 있었고, 本研究에서는 第5章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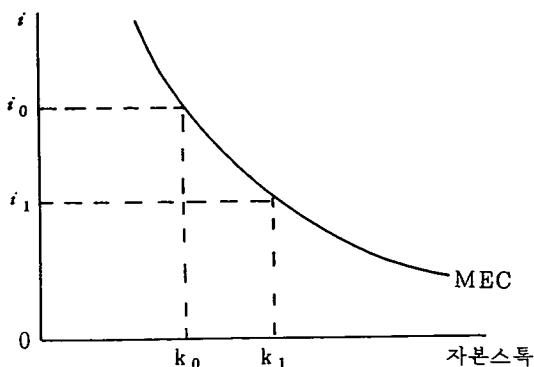
의 처분없이 금융자산의 구입 즉, 자금차입을 필요시 쉽게 할 수 있음으로써 이로부터 높은 유동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농가의 중장기 금융의 사용이 농가의 바람직한 균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농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동성의 상실에 따른 비금전적 수익을 포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가의 미사용신용규모는 농가보유 고정 및 금융자산의 규모와 기존 부채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는 새로운 중장기 차입에 대한 사용여부의 결정을 이들 자산이나 기존 부채액의 규모 또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수익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제 5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한다.

#### 4. 投資資本의 限界效率과 資金需要

農家의 中長期 資金需要는 keynes가 제시한 「資本의 限界效率(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 MEC)」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설명된다. 앞에서 설명한 「농가의 자산배분 모형」이 농가 내부의 각 자산간의 일반 균형조건을 가정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부분균형을 전제로 한다.

자본의 한계효율(MEC) 곡선은 시장의 여러 금리수준과 바람직한 자본 스톡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圖 3-1)과 같이 적정자본스톡은 시

圖 3 - 1 資本의 限界效率과 適正資本 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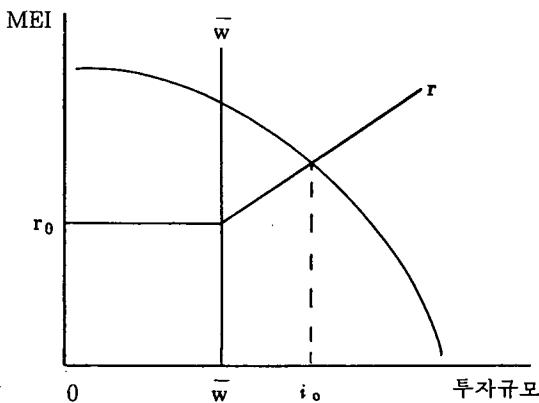


장 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MEC곡선상의 각각의 점에서 투자효율(또는 내부수익률)은 시장금리와 같음을 의미한다. 즉, 투자의 순현재가치는 “0”이다. 만일 현재의 자본스톡이  $k_0$ 이고 이자율이  $i_0$ 에서  $i_1$ 으로 낮추어 진다면 농가는 필요한 자본스톡을  $k_0$  대신  $k_1$ 으로 늘리게 된다. 따라서 MEC커브는 자본감소가 일어나는 자산의 수요곡선이 된다. 한편 투자의 한계효율(MEI)곡선은 투자내부수익률과 자산스톡의 순증가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되며 이는 각각의 자본스톡과 MEC 곡선에 대응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MEI곡선은 농가의 순투자와 시장이 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금공급곡선과 농가의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곡선을 감안한 적정투자 및 외부차입규모의 결정을 아래의 〈圖 3-2〉를 통하여 좀더 검토하고자 한다.

投資의 限界效率(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MEI)은 투자비용(Co)과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 $R_t$ ,  $t = 1, \dots, n$ )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을 뜻하며, 합리적인 투자의 결정은 이것과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투자를 위한 자본의 기회비용은 투자비용의 구성에 따라 다르다. 투자비용의 전부가 자기자금으로 조달될 경우 동자본의 기회비용은 일 반적으로

圖 3 - 2 投資의 限界效率과 適定投資水準



예금이자율이 되며, 타인자본으로 조달될 경우 자본의 기회비용은 대출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가의 투자를 위한 자본의 조달이 자기자금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될 때 투자의 기회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r = r_a \cdot A + r_b \cdot (1 - A)$$

단  $r$  :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

$r_a$  : 예금금리

$r_b$  : 대출금리

$A$  : 자기자금비율

$1-A$  : 타인자금비율

위에서  $r_b > r_a$ 의 관계가 일반적이므로 타인자금의 비율( $1 - A$ )의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기회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圖 3-2〉는 투자의 한계효율과 자본의 기회비용이 주어졌을 때 적정투자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圖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의 투자는 투자자본의 수요곡선 즉, 투자의 한계효율곡선과 자본의 공급곡선 즉, 조달자본의 평균 이자율선이 만나는  $i_0$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투자규모가  $i_0$ 로 결정됨에 따라 농가의 차입규모(=순차입)는 총투자액과 자기자본조달액( $\bar{w}w$ )의 차이인  $\bar{w}i_0$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농가의 중장기 차입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의 자본효율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자기자본의 비율이 커지거나 대출자금의 금리가 높을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5. 해롤드(Harold)의 成長模型과 金融需要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에 대한 수요분석의 또 다른 접근은 加速度原理에 기초를 둔 해롤드의 경제성장모형의 이용이다. 해롤드의 성장모형은 저축과 가속도원리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먼저 貯蓄에 관한 가정을 보면 어느  $t$  期의 全體經濟의 純貯蓄은 當該期間に 발생한 소득  $Y_t$ 의 일정비율( $S$ )로 가정한다. 여기서 순저축이란 총

저축에서 負의 저축을 공제한 후의 차액으로서 실제로 저축한 양을 가리킨다. 소득중 일정비율이 저축된다는 가정은 보통 기대소득 및 의도된 저축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해를드의 가정은 실제소득 및 실제저축에 적용되는 가정이다.

어느 기간중의 實際所得은 그 기간의 총생산에서 자본설비의 유지 및 대체를 위하여 소모된 부분을 공제한 것이며, 실제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공제한 것이다. 또한 실현된 투자는 실제소득중 소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그 사회의 축적된 부의 증가분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정의상 실제저축은 실제투자와 항상 일치한다. 이상과 같은 해를드의 저축에 관한 가정은 아래의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S_t = s Y_t .$$

다음으로 投資에 대한 해를드의 가정을 보면  $t$ 期의 의도된 投資( $I_t$ )는  $t$ 期의 所得( $Y_t$ )이 그 前期인  $t - 1$ 期의 所得을 초과하는 양의 一定比率( $\gamma$ )이라고 가정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I_t = \gamma (Y_t - Y_{t-1})$$

위의 가정에 따르면 기업가들이 의도하는 투자의 크기와 실제 투자의 크기가 같아질 수 있는 속도로 증가할 때 소득이 적정률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정성장률 또는 필요성장률(warranted or required rate of growth)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의 크기는 더 커지며, 또 소득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기업가는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며,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아서 투자의 크기가 커지면 소득의 적정성장률 역시 높아지게 된다.

해를드의 기본가정에 의하면 실현된 투자 곧 저축은  $S_t = s Y_t$  이고, 의도된 투자는  $I_t = \gamma (Y_t - Y_{t-1})$  이므로 의도된 투자가 그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3) s Y_t = \gamma (Y_t - Y_{t-1})$$

식 (3)의 양변을  $Y_t$ 와  $g$ 로 나누면

$$\frac{s}{g} = \frac{Y_t - Y_{t-1}}{Y_t} = \frac{\Delta Y_{t-1}}{Y_t} \text{ 또는}$$

$$(4) \quad s = g \cdot \frac{\Delta Y_{t-1}}{Y_t}$$

의 식이 얻어진다.

그런데 저축률( $s$ )은 저축( $S_t$ )을 소득( $Y_t$ )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것 이므로 식 (4)는 아래의 식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저축( $S_t$ ) = 投資( $I_t$ ) = 소득( $Y_t$ ) × 자본계수( $g$ ) × 적정소득증가율

$$(5) \quad (\frac{\Delta Y_{t-1}}{Y_t})$$

위의 식으로부터 投資( $I_t$ )는  $t$ 년도의 소득과 자본계수, 그리고 적정성장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관계를 농업부문의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추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다. 즉, 농업부문의 투자는 농업내부에서의 투자와 농업외부로부터의 차입투자로 구성되며, 이의 구성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6) \quad \text{투자를 위한 차입금 규모} = \text{소득} \times \text{자본계수} \times \text{적정소득증가율} \\ \times (1 - \text{농업 내부자금조달비율})$$

해롤드의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농업부문의 중장기 금융자금수요의 추정은 모형자체가 단순함으로써 추정이 용이한 점과 농업부문의 일정 성장률을 유지키 위하여 공급되어야 할 금융자금의 규모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기 모형이 갖는 몇 가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한편 해롤드의 성장모형을 농업부문의 중장기 금융수요규모 추정에 직접 이용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롤드의 가속도모형은 자본계수(자본·산출비율)가 물가나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물가 및 이자율의 변화에 따

른 생산요소간의 대체와 이에 따른 자본재수요 즉, 투자 수요가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Y_t, s. g > 0$ 이면 투자수요가 증족되기 위해서  $Y_t - Y_{t-1} > 0$ 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이 투자이외의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앞의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Y_t - Y_{t-1} > 0$ 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식 (6)에서 농업내부의 자금조달비율은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또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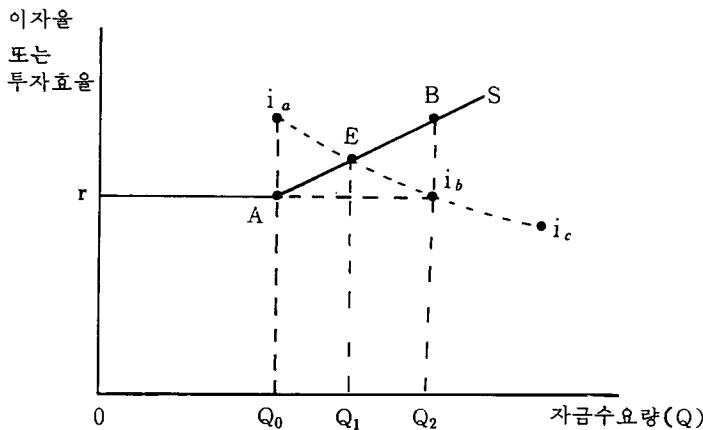
이상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해률드 모형」을 응용한 농업부문의 중장기 금융자금수요모형은 적정성장률(또는 소득증가율) 유지를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투자의 규모와 이를 위한 금융자금규모의 추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 하겠다.

## 6. 資金의 需給曲線과 需要量 測定

農家の 中長期 資金에 대한 需要分析을 위해서는 농가수준에서 자금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어떻게 존재하고, 이에 따른 균형 투자량, 또는 차입액은 어느 수준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中長期 投資에 대한 資金의 需要是 投資資金의 限界效率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은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中長期投資가 일시에 많은 資金이 소요되고, 또한 그것은 細分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곡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需要의 點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圖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중장기 투자를 위한 계획된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한계효율이  $i_a, i_b, i_c$ 로 존재하고 자금의 공급곡선 S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균형투자량은  $Q_1$  대신에  $Q_0$ 에 머물게 된다. 만일 농가가 사업 a를 결정하고 추가로 사업 b를 투자하게 되면 농가의 기

圖 3-3 中長期 投資에 대한 資金의 需要點과 供給線



대수익은  $\square A Q_0 \cdot Q_1 \cdot i_b$  인 반면 비용은  $\square A Q_0 \cdot Q_2 \cdot B$ 가 되어  $A \cdot i_b \cdot B$  만큼 손실을 예상하게 됨으로써 결국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즉, 농가의 중장기 자금수요에서 균형투자량은 자금의 공급선과 수요곡선에 일치하는 수준에서 투자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효율( $i$ )이 이자율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즉,  $i \geq r$ )에서 결정됨으로써 이자율 자체가 투자규모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수요량도 이자율의 변동에 아주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현상은 전체농가의 중장기 자금의 수요량에 대한 이자율과의 관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농가의 자금수요가 개별 농가의 자금수요점을 합한 것이며,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농가마다 투자에 대한 한계효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산할 경우 자금 수요에 대한 수요곡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농가의 총량적인 자금수요분석에서는 투자유형별·개별농가의 투자효율이나 또는 농가별 중장기성 투자의 한계효율에 대한 분포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농가의 중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분석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자금의 수요량을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농가의 중장기 자금의 수요를 측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貯量(stock)으로서의 수요량과 流量(flow)으로서의 자금에 대한 수요로 나눌 수 있고, 流量의 측면에서는 粗需要(demand for gross flow)과 純需要(demand for net flow)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貯量으로서의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는 中長期 投資를 위한 他人資金의 總計 즉, 中長期 投資를 위한 負債를 의미한다. 農家の 中長期 投資를 위한 負債水準의 決定은 農家の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資金運用의 結果에 따라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는 농가의 資產構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농가가 어떠한 資產의 構成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負債의 水準도 決定될 수 있다.

中長期 금융자금의 粗需要는 農家가 一定 期間中에 外部로부터 고정자산 투자를 위하여 借入한 총액을 뜻한다. 이는 一定期間中 外部로부터 借入한 총금액중 당기중에 상환한 부분을 뺀 純借入額과 구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기간이 길고, 이에 따라 借入한 연도중 원금에 대한 상환이 크지 않을 경우 粗需要額과 純需要額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純需要額은 前期末 中長期性 負債總額에서 當期末 負債總額을 차감함으로써 그 수요량을 측정할 수 있다.

農家 中長期 資金의 粗需要의 決定은 基本的으로 當期中の 投資와 자기 자금의 조달능력에 의해서 決定되며, 純需要의 경우에는 위의 요인에 당기 중의 元利金 상환능력 즉, 당기중 農家所得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 第 4 章

# 中長期 農業金融市場의 構造分析

## 1.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需要變化

중장기 자금의 수요란 일정 기간에 어떤 경기주체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성 자금의 量으로 일단 규정할 수 있다. 중장기성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1년 이상인 固定資本의 투자를 전제로 한 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중장기 자금수요란 耐久年限 1년 이상의 고정자산투자에 소요되는 자금필요량으로 규정하고, 이 때 자기자금을 제외한 他人資金의 필요량을 금융자금수요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필요량이란 시장에서의 가격(이자율)과 융자조건을 감안한 수요량임은 물론이다.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의 需要를 测定하는데는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貯量(stock)으로서의 수요(= 中長期性 投資를 위한 負債)와 流量(flow)의 개념으로 파악한 粗需要(demand for gross flow)와 純需要(demand for net flow)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貯量으로서의 수요에 대한 그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分析코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나타난 고정자산용 부채에 관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이 자료는 분석에 직접 이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나 시계열 분석에서 이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코자 한다.

농가의 연도별 고정자산용부채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당년도의 고정자산투자와 반드시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당년도에는 전혀 투자를 안했지만 과거의 부채를 그대로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회계연도의 구분이 분석자의 임의에 의해 좌우되므로 일시적인 자기자금 조달의 時差로 인한 단기성 자금의 수요를 중장기성 자금수요로 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연도별 농가의 고정자산용 부채잔액으로 본 중장기자금의 수요(1980년 불변가격 기준)는 197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오다 1985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가세가 급격하였던 시기는 1982~84년까지로 소입식증가, 농기계투자의 급증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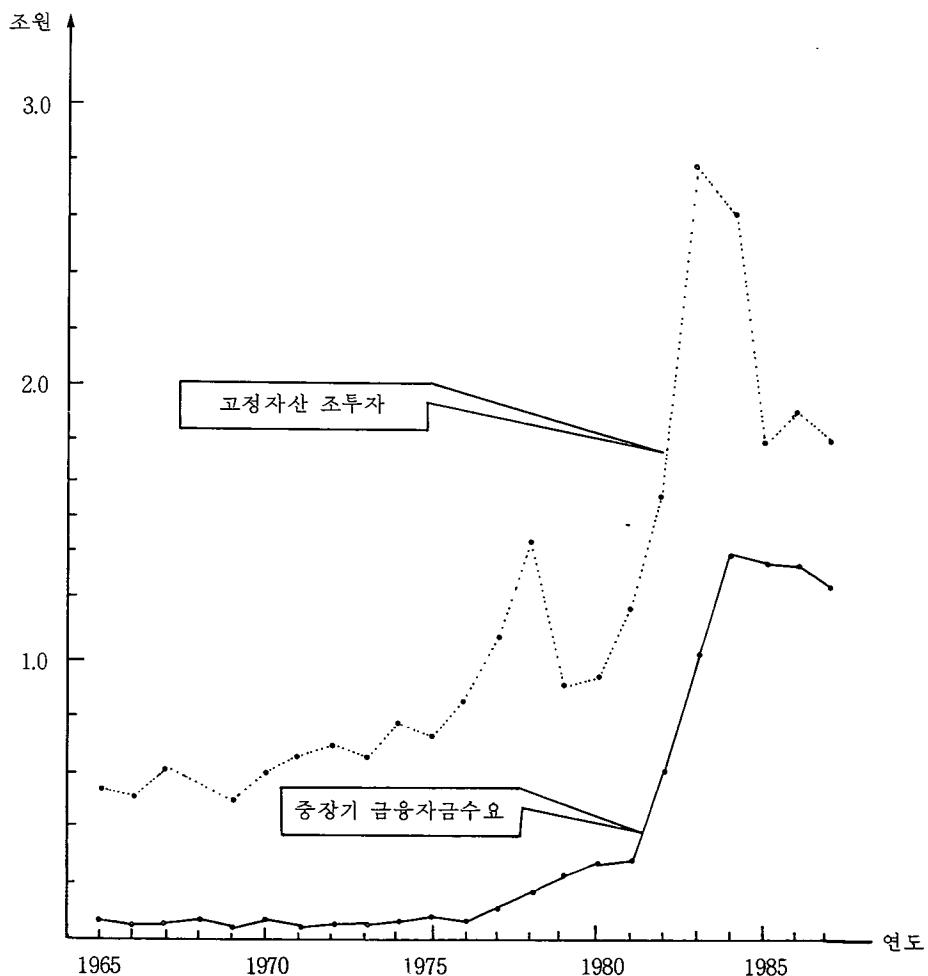
농가의 중장기 金融資金 수요의 변동형태를 장기적으로 고찰해보면 대체로 4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圖 4-1>.

제 1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로 농가전체로 본 中長期資金 總需要는 약간의 변동을 보인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자금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의 농가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일차적인 요인외에도 고정자산투자를 위한 자기자금의 조달비중이 높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가 낮았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당 고정자산투자액이 과거에는 현저히 작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고정자산투자의 주종은 토지와 대동물구입이라 할 수 있으며, 농기구는 소형기계 중심이었다.

둘째, 농촌금융시장에 制度金融의 발전이 진전되지 않았다. 제도금융의 미발달은 그만큼 농업부문에 대한 外的資本制限이 심했다는 것이 되며, 농가는 투자를 위해 일정기간 계속 자기자금의 축적이 이뤄진 뒤에야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다.

圖 4 - 1 農家의 中長期 金融資金需要 變動 (1980年 不變價格)



셋째, 農業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自給指向的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商業化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투자와 자본지출이 크게 일어날 內的 要因을 갖지 못했다.

넷째, 農業노동력이 풍부한 단계였으므로 기계화투자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또한 이상과 같은 요인들은 농민으로 하여금 현재보다는 더욱 위험

表 4-1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需給變動(1980年 不變價格)

	고정자산조투자		증장기금융자금공급	
	금액(억원)	전년대비증감률(%)	금액(억원)	전년대비증감률(%)
1965	5,483	6.5	706	16.2
1966	5,242	△4.4	405	△42.6
1967	6,166	17.6	538	32.8
1968	5,886	△4.6	632	17.4
1969	5,029	14.6	362	△42.7
1970	6,029	19.8	717	98.1
1971	6,586	9.2	366	△49.0
1972	7,050	7.0	478	30.6
1973	6,707	△4.9	403	△15.7
1974	7,683	14.6	633	57.1
1975	7,342	△4.4	789	24.6
1976	8,738	19.0	673	△14.7
1977	11,109	27.1	1,189	76.7
1978	14,224	28.0	1,857	56.2
1979	9,139	△35.7	2,319	24.9
1980	9,587	4.9	2,938	26.7
1981	11,991	25.1	3,098	5.4
1982	16,063	34.0	6,125	97.7
1983	27,869	73.5	10,342	68.8
1984	26,073	△6.4	13,977	35.1
1985	17,923	△31.3	13,613	△2.6
1986	19,330	7.6	13,449	△1.2
1987	18,184	△5.9	12,751	△5.2

\* 換價指數는 GNP deflator 사용.

회피적인 성향을 갖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위한 자기자금조달 행태도 지금과는 크게 다른 결과 증장기자금수요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농가의 증장기자금 수요변동의 제 2기는 1977~81년까지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 증장기자금 수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한다. 이 시기의 농업상 특징은 商業化가 高所得作目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전되고 농업노동력은 부족단계로 전환되어 農機械化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던 시기이

다. 또한 농업금융부문 역시 상당히 기반을 굳히고 金融供給規模를 늘임으로써 농가의 外的資本制限을 완화시켜나간 시기로 볼 수 있다.<sup>11)</sup>

제 3기는 1982~84년간으로 소파동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는 전농가 총계(80년 불변가 격 기준)로 1981년의 3,098 억원에서 1984년 말에는 13,977 억원으로 4.5 배나 폭증하였다. 이같이 금융자금의 수요가 격증한 것은 米價支持政策의 후퇴와 複合營農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배경하에 밀어부친 소입식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금융공급이 농민의 수요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소득원인 미곡부문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워짐으로써 일어난 施設農業의 급팽창, 경운기 중심에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의 기계화의 급진전 등이 농가의 투자를 부추기면서 자연히 중장기금융자금의 수요는 격증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제 4기는 소파동의 후유증으로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되므로 인해 자금수요 역시 줄어드는 최근이다.

이상은 연도말 시점에서 본 당년도의 중장기금융자금 수요규모의 변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수요규모의 변동은 어떠한 조건의 자금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政策的 判断을 유도할 수 있다. 즉, 고정자산의 耐久年限에 맞춘 융자기간의 중장기성자금을 사용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조건이 불리한 短期性資金, 특히 私債의 이용은 얼마나 하였는지를 밝힘으로써 중장기 제도금융공급의 확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11) 이 시기를 부채증가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어 고추파동, 돼지파동 등 농가의 수지악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며, 잇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농산물수입개방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시기이다.

## 2. 中長期 制度金融 供給의 變化推移

농가가 고정자산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中長期性 制度金融資金은 농·축협을 통해 지원되는 중장기성 정책자금과 이를 금융기관 자체에서 운용하는 중장기성 金融資金이 있다.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제도금융의 공급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공급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동안의 농가의 投資를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1년도에 공급된 중장기 제도금융중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경상가격으로 약 136억원 정도였다. 이것이 1975년도엔 약 485억원, 1980년엔 2,260억원, 1987년에는 약 7,35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粗供給額基準)〈表 4-2〉.

중장기 제도금융 공급이 이처럼 급속 신장을 한데는 197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은 때문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고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금융의 供給推移를 본 것이 〈表 4-3〉이다. 198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본 對農民 중장기 제도금융의 연간공급액은 1970년대(1971~80)에는 연평균 13.2%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0년대에는 그 증가속도가 약간 감소한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였다.

表 4-2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供給額(經常價格, 粗供給額 基準)

단위 : 억원, %

연 도	농 협				축 협	합 계
	금융자금 <sup>1)</sup>	재정자금 <sup>2)</sup>	통합자금 <sup>3)</sup>	소 계		
1971	69	97	—	136	—	136
1975	264	221	—	485	—	485
1980	60	366	1,834	2,260	—	2,260
1985	315	1,589	2,621	4,525	279	4,804
1987	396	4,717	1,752	6,865	487	7,352

1) 금융자금중 금융증기자금만을 말함.

2) 장기수리자금, 농안기금을 제외한 재정자금.

3) 단기농사자금과 사채대체자금을 제외한 통합자금.

자료: 농협중앙회

表 4-3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供給額(1980年 不變價格)

단위 : 억원, %

연도	농 협				축 협	합계
	금융자금	재정자금	통합자금	소계		
1971	375	527	—	739	—	739
1975	677	567	—	1,244	—	1,244
1980	60	366	1,834	2,260	—	2,260
1985	228	1,150	1,897	3,274	210	3,484
1987	269	3,207	1,191	4,667	331	4,998
총 증 가	'71~80 △18.4	△4.0	—	13.2	—	13.2
	'80~87 23.9	36.4	△6.0	10.9	—	12.0

자료 : 농협중앙회.

재원별로는 財政資金이 198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한편 공급액을 年末殘額 기준으로 보면 1987년 말 현재 중장기자금의 잔액은 2조 1천억원이며, 이중 통합자금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재정자금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表 4-4)。

연말잔액의 실질적인 증가추이를 보기 위해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것이(表 4-5)이다. 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0년대에는 11.0%였으나 1980년대에는 12.5%로 최근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表 4-4 對農民 中長期 政策資金 年末殘額(經常價格)

단위 : 억원, %

연도	농 협				축 협	합계
	금융자금	재정자금	통합자금	소계		
1971	231(51.1)	221(48.9)	—	452(100.0)	—	452(100.0)
1975	445(44.9)	546(55.1)	—	991(100.0)	—	991(100.0)
1980	711(11.3)	1,421(22.6)	4,169(66.2)	6,301(100.0)	—	6,301(100.0)
1985	900( 5.5)	4,905(30.2)	10,190(62.7)	15,995( 98.3)	269(1.7)	16,264(100.0)
1987	1,113( 5.3)	7,968(37.7)	11,631(55.0)	20,712( 98.0)	433(2.0)	21,145(100.0)

자료 : 농협중앙회.

表 4-5 對農民 制度中長期 資金 年末殘額(1980年 不變價格)

단위 : 억원, %

연도	농 협				축 협	합 계
	금융자금	재정자금	통합자금	소 계		
1971	1,255	1,201	—	2,456	—	2,456
1975	1,141	1,400	—	2,541	—	2,541
1980	711	1,421	4,169	6,301	—	6,301
1985	651	3,549	7,373	11,574	195	11,769
1987	757	5,417	7,907	14,080	294	14,374
증 률	'71~'80	△6.1	1.9	—	11.0	11.0
	'80~'87	0.9	21.1	9.6	12.2	12.5

\* 換價指數는 GNP deflator.

자료 : 앞의 〈表 4-4〉와 같음.

### 3. 農家の 中長期 投資와 政策資金의 需要充足度

農家の 中長期 金融資金 수요규모에 대한 제도금융의 공급규모는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금융의 공급규모를 얼마나 확대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의 표본지역인 충남·경북 농가의 경우 1987년 중 고정자산투자를 위해 사용한 金融資金(차입금)中 28.2%만이 중장기성 제도금융이었으며, 42.8%는 相互金融이나 영농자금 같은 단기성자금이었다. 그리고 사채는 29.0%였다. 따라서 차입금중 72%가 고정자산 투자재원으로는 적합치 않은 단기성자금이라 할 수 있다 <表 4-6>.

한편 농협중앙회의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농협자료를 보면 1987년 중 농가의 고정자산 구입을 위한 차입금중 27.3%만이 중장기 정책자금이었을 뿐 단기성 제도금융이 62.5%를 차지하였

表 4-6 農家の 固定資產 投資財源中 金融資金 構成

자금종류	중장기성제도금융	단기성자금		계
		단기제도금융	사금융	
구성비	28.2	42.8	29.0	100.0

表 4 - 7 固定資產 投資財源中 金融資金의 構成 (農家單位)

단위 : %

연 도	제 도 금 용		사 금 용	계
	중 장 기 자 금	단 기 성 자 금		
1983	30.4	58.3	11.3	100.0
1984	27.4	58.7	13.9	100.0
1985	32.1	50.3	17.6	100.0
1986	37.1	55.0	7.9	100.0
1987	27.3	62.5	5.2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고, 사금융이 5.2%였다 <表 4-7>. 한편 이 구성비는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농가의 고정자산 投資財源의 活用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농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재원으로서는 적합치 않은 단기성자금 또는 高利의 사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농가의 자금운영을 어렵게 하고 농업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부문의 투자촉진과 농가경제의 수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中長期 政策金融의 공급확대와 함께 타부문으로의 전용을 막는 효율적인 장치의 마련 역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農業資本 收益率과 金利

농가의 투자를 위한 금융시장이 구조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공급의 부족으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면 농가의 자본투자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에 대한 가격여건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공급가격(金利)은 어떠한 변동을 보이고 이들간의 격차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농가가 합리적인 농가의 자본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자본비용, 즉 시장금리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직면하는 金融市場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전반적인 수준

에 비해 비싼 자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농가의 자본투자는 그만큼 위축된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小農經濟가 지배하는 농업부문에서는 농업경영의 목표가 이윤극대화(단기) 또는 소득극대화(장기)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 및 자가노동력이 타부문으로의 이용전환이 매우 제한될 때(즉, 이를 자원의 높은 비이동성) 이를 자원의 기회비용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는 투하된 자본 자체의 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낮더라도 노임획득가능성이 없다면 자본투입이 이론적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토지에 대한 地代水準의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소농의 자가노임 低評價主義에 의해 초래된다. 즉, 소농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윤법주가 성립될 수 없고 자본비용인 利子와 토지에 대한 地代의 일부도 자가노임귀속분에서 지불된다는 것이다. 소농경제의 이러한 속성은 현상적으로 자본의 과잉투하, 高率小作料支拂의 형태로 나타난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平均資本收益 rate을 이용할 수 있다. 한계효율은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시장금리와 비교하는 보다 적합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投資慣行은 투자가 한계단위로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꺼번(lump sum)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효율의 적용가치는 상당히 줄어든다. 그리고 분석상의 문제로서 생산함수를 통한 자본의 한계효율 측정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설광언, 1988).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광언(1988)이 시도했던 平均資本收益 rate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1965~87년까지의 농가의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기로 한다.<sup>2)</sup>

평균 농업자본수익률의 계측은 農業純收益과 農業資本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나 여기서는 농업에

2) 농가의 고정자산이 모두 한꺼번에 대량투자되지 않는 한 평균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한계효율과 구분되며, 농가가 현재 수준의 자산규모에서 추가로 투자 할 경우 이의 수익률은 여기서 계산된 평균 자본수익률 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투하된 總資本의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의미로 접근한다. 평균 자본수익률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평균 자본수익률} = \frac{\text{농업자본 순수익}}{\text{총투하자본}} \times 100$$

농업자본순수익 = 농업조수입 - 농지임차료를 제외한 농업경영비 + 재고

생산자재 증감 - 자가노력비 - 조세공과금 및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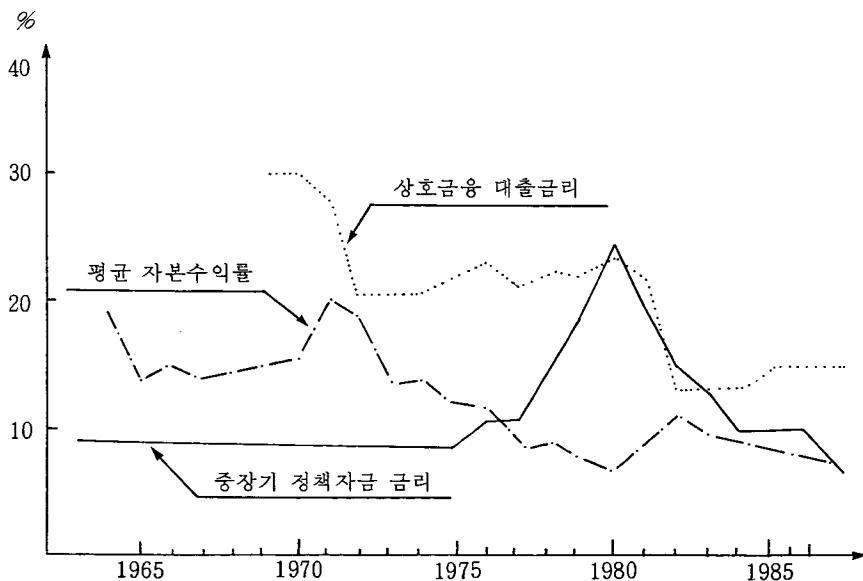
단, 자가노력비 = 농업노임(일당) × 가족노동일수(품앗이 포함)

총투하자본 = 재생산 가능한 자본액 + 자작지 평가액 + 차용지 평가액

총투하자본은 농업생산에 활용된 고정 및 유동자본 경영지의 평가액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순수익은 농업조수입 중 자가노임부분을 제외한 利子, 地代 및 利潤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 자본수익률은 투하자본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된 총자본에 대한 평균수익률 개념이다.

전국 평균농가의 평균 자본수익률의 시계열변동을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와 관련지어 보면 두 개의 시기로 구별된다. 前期는 1976년까지로 자본

圖 4 - 2 農業資金 金利와 平均 農業資本 收益率



수익률이 정책자금의 금리수준보다 높았다. 즉, 中長期 政策資金을 대부 받아 농업경영을 할 경우 그 이자를 지불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호금융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 이자지불은 자가노임부분에서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77년부터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마저도 평균 자본수익률을 상회하여 농업부문의 자본투자는 그만큼 비효율적이었음을 나타내 준다(圖 4-2), (表 4-8)。

表 4-8 平均 農業資本 收益率과 農業資金 金利

단위 : %

연 도	평균자본수익률	농 업 자 금 금 리 <sup>3)</sup>		
		중장기정책자금 <sup>1)</sup>	상 호 금 용	사 채 <sup>2)</sup>
1965	13.8	9.0	—	—
1966	14.9	9.0	—	—
1967	13.7	9.0	—	—
1968	14.4	9.0	—	—
1969	14.9	9.0	30.0	—
1970	15.4	9.0	30.0	—
1971	19.9	9.0	28.0	—
1972	18.3	9.0	20.4	54.0
1973	13.1	9.0	20.4	54.0
1974	13.7	9.0	20.4	46.8
1975	11.9	9.0	22.0	49.2
1976	11.6	10.5	23.0	39.6
1977	9.0	10.5	21.0	42.0
1978	9.3	12.5	22.0	44.4
1979	7.5	12.5	22.0	42.0
1980	6.9	16.5	23.5	46.8
1981	9.2	15.0	21.5	43.2
1982	10.9	10.0	13.0	32.4
1983	9.3	10.0	13.0	28.8
1984	9.1	10.0	13.5	28.8
1985	8.6	10.0	14.5	26.4
1986	8.0	10.0	14.5	24.2
1987	7.9	8.0	14.5	22.2

1) 1970년까지는 재정증기(2~5년)자금, 1971년부터는 금융증기자금 기준.

2) 농협중앙회 조사부

3) 금리수준은 당해년도말을 기준으로 함.

한편 평균농업자본수익률의 농가별 분포를 충남·경북지역에 한정시켜보면 전체의 43%가 5% 미만이었으며 10% 미만이 62%였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금리 이상인 1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농가는 23%에 불과하였다.

수익률의 분포를 投下資本規模別로 보면 100 만원 미만의 소규모계층과 5,000 만원 이상의 대규모계층에 자본수익률이 낮은 농가의 상대적 집중도가 높았다. 500 만원 미만의 자본규모를 가진 농가의 경우는 수익률이 5%가 못되는 농가가 이 계층의 67%나 되었고, 500~1,000 만원대의 계층에서의 5% 미만의 저수익률을 보인 농가가 4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5,000 만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투하한 농가계층에서도 5% 미만의 저수익률 농가가 54%나 되었다. 따라서 5% 미만의 저수익률 농가는 투자본규모 4,000 만원까지는 점차 상대적 집중도가 떨어지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지규모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이때는 오히려

表 4-9 農家의 資本規模와 資本收益率 分布

단위 : 호, %

자본수익률 자본규모	5%미만	5~10	10~15	15~20	20%이상	계
500 만 원 미 만	18(67)	2( 7 )	2( 7 )	0	5(19)	27(100.0)
500~ 1,000	23(49)	13(28)	2( 4 )	3( 6 )	6(13)	47( " )
1,000~ 2,000	37(42)	16(18)	12(14)	6( 7 )	17(19)	88( " )
2,000~ 3,000	30(37)	14(17)	13(16)	9(11)	15(18)	81( " )
3,000~ 4,000	13(29)	5(11)	14(32)	7(16)	5(11)	44( " )
4,000~ 5,000	14(32)	11(25)	8(18)	7(16)	4( 9 )	44( " )
5,000 만 원 이 상	31(54)	14(24)	7(12)	3( 5 )	3( 5 )	59( " )
계	167(43)	75(19)	58(15)	35( 9 )	55(14)	390( " )

려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저수익률 농가의 집중도는 높아가고 있을 뿐이다. 5% 미만의 저수익률을 보인 농가비중은 0.5 ha 미만의 영세농층에서 62%, 0.5~1.0 ha의 소농층에서는 50%, 1.0~1.5 ha의 중농하층은 37%, 1.5~2.0 ha의 중농상층은 33%, 2.0 ha 이상의 대농층에서는 22%였다. 반면에 15% 이상의 高收益率 농가의 분포는 영세농층에서는 겨우 6%, 소농층에서는 23%였으나 중농 이상층에서는 30%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表 4-10)。

이상의 결과만 놓고 볼 때 利用資本規模와 평균 자본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경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영세소농층일수록 자본의 기회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저수익률 농가가 많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제 농가가 자본을 이용해서 事後的으로 실현한 資本의 需要價格 측면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들인 가격, 즉, 資本의 供給價格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다시 말해서 농가가 고정자산의 투자를 위해 사용한 자본의 평균 가격(연평균 이자율)은 얼마나 되며, 총투자자본(자기자본 + 차입자본)에 대한 잠재비용은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표본농가의 1987년중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평균금리는 연 12.5%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의 금리 8.0%보다는 4.5%포인트 높은 것 이지만 상호금융의 14.5%에 비해서는 2.0%포인트 낮다. 그리고 평균 자

表 4 - 10 耕地規模別 農家의 資本收益 rate 分布

단위 : 호, %

자본수익률	~0.5 ha	0.5~1.0	1.0~1.5	1.5~2.0	2.0 ha~	계
0% 미 만	26( 32.9)	15( 15.8)	24( 22.2)	13( 20.6)	8( 17.8)	86( 22.1)
0~ 5%	23( 29.1)	32( 33.7)	16( 14.8)	8( 12.7)	2( 4.4)	81( 20.8)
5~10%	19( 24.1)	14( 14.7)	20( 18.5)	11( 17.5)	11( 24.4)	75( 19.2)
10~15%	6( 7.6)	12( 12.6)	13( 12.0)	17( 27.0)	10( 22.2)	58( 14.9)
15~20%	2( 2.5)	7( 7.4)	12( 11.1)	7( 11.1)	7( 15.6)	35( 9.0)
20~30%	2( 2.5)	9( 9.5)	12( 11.1)	3( 4.8)	4( 8.9)	30( 7.7)
30% 이상	1( 1.3)	6( 6.3)	11( 10.2)	4( 6.4)	3( 6.7)	25( 6.4)
계	79(100.0)	95(100.0)	108(100.0)	63(100.0)	45(100.0)	390(100.0)

본수익률 7.9 %보다는 4.6 %포인트가 높다(表 4-11). 경지규모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엿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를 포함한 연중 고정자산투자액(=차입금)에 대한 資本의 供給費用率(자본의 기회비용/고정자산 투자액)은 평균 연 11.5 %로 차입금의 평균금리보다는 1.0 %포인트가 낮았다(表 4-12).

따라서 농가가 실제로 지불하는 자본가격과 사후적으로 실현한 댓가(資本의 報酬)의 차이는 적어도 3.6 %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表 4 - 11 耕地規模別 農家の 固定資産投資를 위한 借入資本의 平均利子 負担率

단위 : 만원, %

경지 규모별	차 입 금 액 (A)	예정 이자지불액(B)	평균 이자율 (B/A)
0.5 ha 미만	5.2	0.7	13.5
0.5 ~ 1.0	28.1	3.1	11.0
1.0 ~ 1.5	60.9	7.5	12.3
1.5 ~ 2.0	42.2	6.9	16.4
2.0 ha 이상	79.0	9.1	11.5
평 균	40.7	5.1	12.5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경북·충남지역 1987년도 표본농가자료.

表 4 - 12 耕地規模別 農家の 資本供給費用

단위 : 만원, %

경지 규모	고정자산 투자액 (A)	자본의 기회 비용			자본 공급 비용 (B/A)
		자기자본 기회비용 <sup>1)</sup>	차입자본 이자	소계 (B)	
0.5 ha 미만	76.1	7.8	0.7	8.5	11.2
0.5 ~ 1.0	110.1	9.0	3.1	12.1	11.0
1.0 ~ 1.5	115.9	6.1	7.5	13.6	11.7
1.5 ~ 2.0	189.3	16.2	6.9	23.1	12.2
2.0 ha 이상	213.7	14.8	9.1	23.9	11.2
평 균	129.6	9.8	5.1	14.9	11.5

1) 상호금융 정기 예탁금(1년 이상)금리 11.0 %를 적용.

자료 : 충남·경북지역 '87년도 표본농가 분석자료.

3) 본 분석에서 이용한 평균 자본수익률은 자본의 보수를 측정하는 정확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한계자본수익률이 보다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이론상 합리적 생산규모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한계수익률보다는 높다. 따라서 농가의 자본수익률 계측방법 자체를 논외로 한다면 여기서 말한 1987년중 자본공급비용률(11.5 %) - 평균자본수익률(7.9 %) = 3.6 %의 격차는 사실 과소 평가된 것이라 하겠다.

## 5. 中長期 資金의 融資期間

자금의 용자기간은 이자율과 함께 자금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이다.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차입에는 그 회임기간에 상응하는 용자기간을 필요로 함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자산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용자기간의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자금의 용자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경우 財源마련이나 금융제도의 여전상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기간의 자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나하는 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지적하고자 한다.<sup>4)</sup>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농업자금중 용자기간 10년 이상의 長期資金은 장기수리자금, 농지구입자금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농업자금은 아니나 주택자금이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용자되고 있다. 장기수리자금은 상환기간이 35년으로 가장 기간이 긴 자금이나 직접적으로 농가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農地改良組合 등에 용자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1987년부터 시행된 20년 상환의 農地購入資金이 농가가 이용하는 最長期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의 자금은 대부분이 상환기간 10년 이내의 中期資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의 자금용자기간을 보면 우리보다 현저히 길다. 농지구입 및 개발에 이용되는 자금의 경우 미국은 最長 40년으로 우리보다 배나 길고, 일본이나 프랑스도 25년으로 우리보다 5년이 더 길다. 농업용수, 영농시설자금의 경우도 미국은 40년 이내의 조건으로 용자되고 있다.

농기구나 가축구입의 경우는 미국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지만 프랑스나 일본은 현저히 긴 상환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災害復舊資金의 경우 우리

4) 강봉순의(1985)의 연구에서는 영농후계자 자금의 용자기간을 검토하면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는 경우 2년 이내의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20년, 프랑스 15년, 일본 6년 이내의 조건으로 융자되고 있다.

한편 부채상환자금의 경우는 미국이 40년, 일본 30년으로 매우 장기이다. 우리는 1987년의 부채대출으로 영세농에 대해 5년 거치 7년 상환의 자금이 12년으로 가장 긴 자금이다〈表 4-13〉.

表 4-13 主要國의 農業政策資金 融資期間

용도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단위:년
농지구입개발	40	20~25	25	20	
농업용수	40	NA	25	35	
영농시설	40	15~20	5~20	5~10	
농기구	7	10	5~20	3~7	
가축구입	7	10	5~20	5	
재해복구 (작물피해)	1~20		3~6	2	
(영농시설)		4			
주택자금	33	NA	NA	20	
부채상환	40	NA	30	5~10	

## 第 5 章

# 農家의 固定資產投資와 資金調達

### 1. 農家의 固定資產의 變化

#### 가. 農家 固定資產規模와 增加推移

고정자산은 장기간 기업내부에 固定化되어 경영수단으로 반복사용되어도 그 형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일컫는다. 따라서 일정 生産期間에 이용되는 고정자산은 전체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費用처리된다. 즉, 일단 투하된 固定資本(庫)은 그 내구년한이 다할 때 투하총액 또는 그 이상이 회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고정자산의 이같은 성격은 이를 위한 투자자금의 성격 역시 내구년한에 맞는 조건의 자금이 바람직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내구년한 10년의 고정자산투자를 위해 타인자본을 이용한다면 상환기간 역시 10년인 조건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가의 中長期資金 需要分析은 이러한 의미에서 고정자산투자를 위한 他人資金의 필요량에 관한 분석이 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그동안 농가의 固定資產 규모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함으

로써 그 趨勢線上에서 본 고정자산의 투자수요와 그에 따른 타인자금, 즉 중장기 金融資金의 수요분석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우리 나라 농가의 고정자산은 1987년 말 현재 호당 평균 2천8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전체농가의 총액으로 환산하면 5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과거 25년 전인 1965년의 농가의 호당 평균 고정자산이 218천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무려 129배나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不變價格 기준으로 보면 약 4배가 증가하였다.

이같은 고정자산의 증가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表 5-1>과 같다. 여기서는 농가의 中長期資金需要를 전국총계수준으로 파악하려는 목적과 연관시켜 농가자산은 全國總計를 각각 대비시켜 보았으며, 농가수준의 증가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놓았다. 고정자산의 증가추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1970년대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농가수준에서 보면 1960년대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sup>11)</sup> 반해 1970년대에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0년대엔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전국 총계로 보면 農家戶數가 계속 감소한 탓으로 증감률은 약간식 줄어들어 1970년대엔 연평균 8.4%, 1980년대 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 이후 농가의 고정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農業의 商業化에 따른 資本投入의 증대, 이농에 따른 농업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農業機械化의 진전이 주요인자로 작용하였으며, 土地價格과 대동물가격의 상대적 등귀도 평가액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농업의 資本裝備率을 반영하는 영농종사자 1인당 고정자산평가액의 변화추이는 농업생산을 위한 자본지출의 비중증대를 나타내주고 있다. 즉, 모든 기간에 걸쳐서 농가 평균 또는 전국농가 총계로 본 고정자산증가율보다 영농종사자 1인당 고정자산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

1) 고정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정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土地價格의 相對的 低評價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대 들어 농가호당 고정자산 증가율과 영농종사자 1인당 고정자산 증가율 차이가 1970년대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농가호당 농업노동력의 유출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노동력이 계속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農產物의 완전한 輸入開放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資本需要는 더욱 커질 것이며, 현재와 같은 농가경제의 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같은 資本需要가 곧바로 中長期 金融資金의 需要增大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농가의 고정자산이 기왕의 경영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자본의 한 형태라면 流通資產은 장래투자를 위한 潛在的 財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농가의 金融資產活用이라는 측면에서 농가의 資產配分과 그 운용(portfolio)에 대한 분석대상으로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信用社會化的 진전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고정자산투자와 중장기 금융자금수요의 연관분석에 유통자산도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농가의 資產構成이

表 5-1 農家資產의 增加推移 (1980年 不變價格)

연 도	농 가 자 산 전 국 총 계				농가호당 고정자산	영농종사자 1인당 고정자산
	총 자 산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		
1962	억원 139,919	억원 119,550	억원 18,321	억원 2,049	천원 4,842	천원 1,428
1965	145,112	124,167	17,815	3,130	4,953	1,572
1970	139,421	113,187	19,986	6,248	4,558	1,566
1975	279,892	241,755	28,628	9,509	10,162	3,553
1980	288,415	254,190	20,749	13,476	11,795	4,736
1985	395,488	345,765	25,164	24,558	17,952	7,239
1987	420,896	356,769	28,413	35,714	19,067	7,945
연평	'62-'70	△ 0.1	△ 0.7	1.1	15.0	△ 0.8
균증	'70-'80	7.5	8.4	0.4	8.0	10.0
가율	'80-'87	5.5	5.0	4.6	14.9	7.1

1) 디플레이터는 GNP deflator를 이용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로부터 재작성.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자.

#### 나. 農家資產構成의 變化

농가의 자산을 고정자산, 유동자산, 유통자산으로 나누어서 그동안의 구성비 변화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70년대 이후 유동자산의 비중 감소와 유통자산의 비중증대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자산은 1970년도까지만 해도 총자산의 14.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유통자산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4.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7년 말 현재는 유동자산은 6.8%인 반면 流通資產은 8.5%로 오히려 후자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같은 변화는 농가경제의 貨幣經濟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동자산은 대부분이 在庫農產物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현재의 화폐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價格變動을 감안하면 주요한 價置貯藏手段으로서 기능하였다. 즉, 거래적 동기 혹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보유와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의 農村金融市場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농가경제가 商業的 農業의 진행에 따라 貨幣經濟화로 크게 진전되어 왔으며, 농업수입중 곡물의 비중 또한 감소됨으로써 재고농산물 중심의 유동자산 비중은 차츰 줄어들고, 대신에 이 부분이 곧바로 유통자산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점에서 본다면 농가의 자산구성변

表 5-2 農家資產의 構成變化

연 도	고 정 자 산	유 동 자 산	유 통 자 산	단위 : %
				총 자 산
1962	85.4	13.1	1.5	100.0
1965	85.6	12.3	2.2	100.0
1970	81.2	14.3	4.5	100.0
1975	86.4	10.2	3.4	100.0
1980	88.1	7.2	4.7	100.0
1985	87.4	6.4	6.2	100.0
1987	84.8	6.8	8.5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로 부터 재작성.

화는 流動資產과 流通資產의 자리바꿈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설명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固定資產 比重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비중은 1987년 현재 85% 수준으로 1962년도 수준과 같다. 물론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그 비중이 88% 수준까지 올라가진 했지만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固定資產對 流動·流通資產의 比率은 대체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다. 固定資產의 種類別 規模 및 構成

농가자산중 고정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임은 土地依存的 農業에서 갖는 農地의 위치에서 기인한다. 이제 고정자산만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비중이 큰 토지는 1987년말 현재 전국총계로 41조 6천억원(경상가격)으로서 고정자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建物로 7조 2천억원(고정자산의 13.7%), 대동물 1조 9천억원, 大農具 1조 2천억원 순이다.

각 고정자산의 증가추이를 보면 1970년대 이후 대농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농구는 1970년대에 연평균 18.1%(1980년 불변 가격기준)의 증가율로 고정자산 전체의 평균증가율 8.4%보다 배 이상

表 5 - 3 全國農家の 固定資產 增加推移(1980年 不變價格)

단위 : 억원

연 도	토 지	건 물	대 동 물	대 농 구	대 식 물	고 정 자 산
1962	98,795	15,162	4,135	990	468	119,550
1965	106,750	13,455	3,072	541	350	124,167
1970	91,671	14,043	5,277	562	1,635	113,187
1975	205,840	23,796	6,988	1,566	3,566	241,755
1980	207,105	32,524	8,590	2,955	3,016	254,190
1985	264,730	48,202	20,765	8,637	3,432	345,765
1987	283,018	48,726	13,007	8,357	3,660	356,769
연평 '62-'70	△ 0.9	△ 1.0	3.1	△ 0.8	16.9	△ 0.7
균증 '70-'80	8.5	8.8	5.0	18.1	6.3	8.4
가율 '80-'87	4.6	5.9	6.1	16.0	2.8	5.0

1) 換價指數는 GNP 디플레이터 이용(1980 = 100).

表 5-4 農家 固定資產의 構成變化

연도	토지	건물	대동물	대농구	대식물	단위 : %
						계
1962	82.6	12.7	3.5	0.8	0.4	100.0
1965	86.0	10.8	2.5	0.4	0.3	"
1970	81.0	12.4	4.7	0.5	1.4	"
1975	85.1	9.8	2.9	0.6	1.5	"
1980	81.5	12.8	3.4	1.2	1.2	"
1985	76.6	13.9	6.0	2.5	1.0	"
1987	79.3	13.7	3.6	2.3	1.0	"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의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어 연평균 16.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토지, 건물, 대동물은 전체 고정자산의 평균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5-3)。

그 결과 고정자산의 부문별 구성은 토지자산의 상대적인 비중감소와 大農具의 비중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급속히 진행된 농업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農機械化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 2. 農家の 固定資產 投資行態

농가의 자산축적은 生産潛在力의 확대라면 투자는 이를 키우는 직접적인 행위이며,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는 투자를 위한 타인자금의 필요액을 뜻한다.

投資動向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가를 점치는 일차적인 작업이다.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동향을 보고자 하는 것은 농가경제의 변화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수립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농가의 中長期資金需要도 이러한 投資動向의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동향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적인 농가의 투자동향을 시계열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변화

방향을 보고자 하며 둘째, 農家類型別로는 투자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농가유형별 분석의 의의는 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농가유형의 구분과 분석은 첫째, 경지규모를 기준으로 한 農業經營 階層別 分析 둘째, 토지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自小作別 분석을 통하여 農地流動化論과 관련지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주의 연령별 투자행태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의 農業構造變化와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에 참조하고자 한다.

### 가. 農家の 固定資產 投資動向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동향은 연중에 구입 또는 대수선을 합한 粗投資의 개념과 조투자액에서 연중 매각액을 차감한 純投資 개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자료는 평균농가의 개념으로 발표되고 있으므로 순투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농가에 따라 연중에 資產의 매각과 구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구입만하거나 아니면 매각만 한다고 볼 수 있거나 동시에 매각과 구입을 하더라도 구입과 매각의 절대액 차이가 현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자료를 분석하면 순투자의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지만 평균농가로 볼 때는 매각액은 매각액대로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 구입액은 구입액대로 평균값을 구하게 되므로 평균농가의 純投資는 매우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평균농가의 투자동향을 보는 데는 불가피하게 粗投資額의 변화로 보고자 한다.

1987년중 농가가 고정자산의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호당평균 143만원이었다. 토지구입비가 485천원, 건물 및 구축물이 373천원, 대동식물 409천원, 대농구 162천원이었다.

이를 전체농가의 총액으로 환산하면 고정자산 구입에 농가가 지출한 금액은 약 2조 7천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이 규모는 최근 3~4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과동을 불러 온 1983~84년의 소입식 붐은 농가의 지출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고정자산 총구입비가 3조 6천억원 수준까

지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제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동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고찰해 보자. 여기서는 1965년 이후부터 보기로 한다. 단 그동안 심했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1980년 불변가격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圖 5-1〉과 〈表 5-5〉는 그동안의 농가전체의 고정자산 조투자와 농가경제잉여의 변동추이를 대비시켜 본 것이다. 농가경제잉여와 고정자산 조투자의 비교는 고정자산 조투자를 위한自己資金의 조달 가능성 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목적인 中長期資金의 수요파악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sup>2)</sup>

그동안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는 시기별로 매우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197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투자규모가 약간의 변동을 보이면서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6~78년간에는 투자규모가 급증하다가 1979년에 急落하여 1976년 수준으로 후퇴한다. 그 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지만 1982년에 가서야 겨우 1970년 수준을 회복한다.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이와 같은 투자동향의 변화는 농업성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자가 노동과 토지에 의존하는 미액위주의 농업으로 耕地와 役牛외에는 별 다른 투자종목이 의미를 갖지 않았던 탓으로 투자규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商業的 農業화가 점차 확산되어가기 시작하고, 農村住宅改良事業의 확대가 고정자산 투자의 급증을 불러왔으나 1978~80년의 잇따른 수도작 냉해 등의 농업재해로 농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2년에 肥育牛가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複合營農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지출은 급등한다. 그리하여 1983년에는 전국

2) 그러나 이러한 비교가 농가의 자금수요계측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그것은 역시 평균농가의 개념에서 본 것으로 개별농가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농가에서는 조투자액 - 농가경제잉여가 중장기자금수요액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나 평균농가로 보면 앞의 순투자개념처럼 수요파악이 될 수 없다.

圖 5-1 農家の 固定資産 粗投資와 農家經濟剩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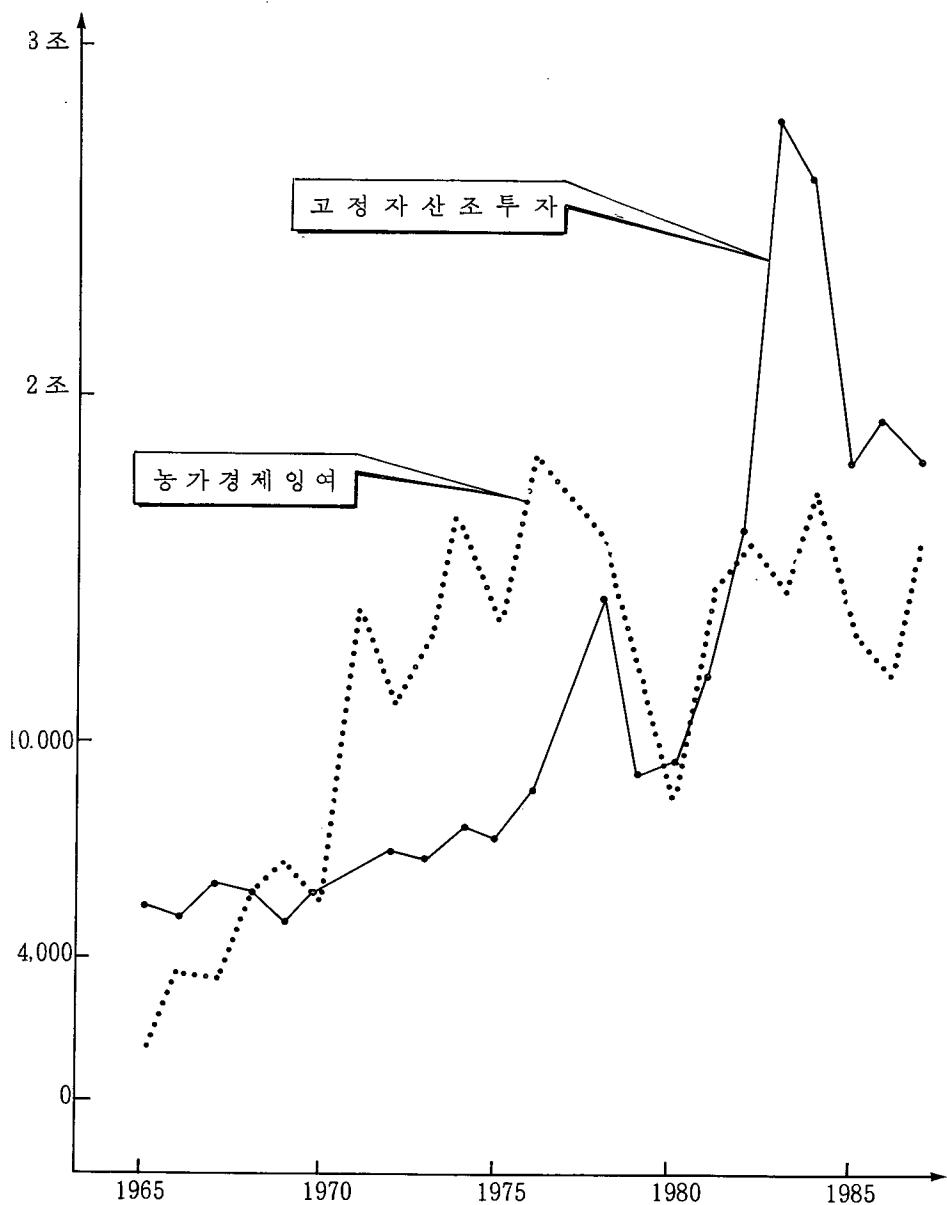


表 5-5 農家의 固定資產 投資와 農家經濟剩餘(1980年 不變價格)

단위: 억원, %

연도	연중 고정자산구입		농가 경제잉여		B/A
	금액(A)	전년대비증감율	금액(B)	전년대비증감율	
1965	5,483	6.5	1,492	△ 74.5	27.2
1966	5,242	△ 4.4	3,609	141.9	68.8
1967	6,166	17.6	3,456	△ 4.2	56.0
1968	5,886	△ 4.6	5,871	69.9	99.7
1969	5,029	14.6	6,743	14.9	129.4
1970	6,029	19.8	5,755	△ 14.7	95.5
1971	6,586	9.2	13,644	137.1	207.2
1972	7,050	7.0	11,824	△ 13.3	167.7
1973	6,707	△ 4.9	12,570	6.3	187.4
1974	7,683	14.6	16,665	32.6	216.9
1975	7,342	△ 4.4	13,843	△ 16.9	188.5
1976	8,738	19.0	18,207	31.5	208.4
1977	11,109	27.1	16,883	△ 7.3	152.0
1978	14,224	28.0	16,210	△ 4.0	114.0
1979	9,139	△ 35.7	12,218	△ 24.6	133.7
1980	9,587	4.9	8,730	△ 28.5	91.1
1981	11,991	25.1	14,123	61.8	117.8
1982	16,063	34.0	15,688	10.4	97.7
1983	27,869	73.5	14,430	△ 8.0	51.8
1984	26,073	△ 6.4	17,289	19.8	66.3
1985	17,923	△ 31.3	13,409	△ 22.4	74.8
1986	19,330	7.6	12,150	△ 9.4	62.9
1987	18,184	△ 5.9	15,506	27.6	85.3

\* 換價指數는 GNP 디플레이터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로 부터 계산.

농가의 총조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74%나 증가하여 지금까지 농가투자의 최고치인 3조 5천 6백억원(경상가격)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1983년 하반기부터 소값의 폭락현상은 1984년부터 투자축소로 나타나 1985년에는 1984년에 비해 그 규모가 31%나 감소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급증한 農家負債가 농가에 압박을 가하면서 최근까지 농가의 투자동향은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이상의 투자방향을 농가경제잉여의 변동과 대비시켜 보면 1960년대엔 농가경제잉여가 조투자규모를 크게 하회하였으나 1970년대엔 오히려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특히 1983년 이후 고정자산조투자액이 농가경제잉여액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평균농가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中長期 金融資金需要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정자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와 대동물이다. 1987년 중 농가의 고정자산 구입비 143만 원 중 34%인 485천 원이 토지구입비였고, 29%인 409천 원이 대동식물구입비였다. 그 다음이 26%(373천 원)를 차지한 건물 및 구축물 구입 또는 대수선비였으며, 대농구는 11%인 162천 원이었다.

이를 전국농가의 총계로 환산해 보면 토지구입비는 경상가격으로 약 9천 억 원, 대동물구입비 7천 5백 억 원, 건물 7천 억 원, 대농구 3천 억 원, 대식물 1백 억 원 정도가 되어 고정자산구입시장 규모는 약 2조 6천 7백 억 원 정도 되는 셈이다. 최근의 투자위축은 주로 대동물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과 대농구에서도 약간씩 줄고 있다(表 5-7).

고정자산구입비의 부문별 구성의 변화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農家經濟의 性格變化가 뚜렷히 드러난다.

1960년대 중반에는 농가의 고정자산 구입비 중 53%가 토지구입을 위한 것이었고, 대동식물 구입비가 35%였다(表 5-6). 따라서 이 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당시의 토지의 존적 농업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동물(한우)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役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토지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든다. 대신에 대동물과 건물 대농구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나 토지와 대동물 구입비가 고정자산 구입비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초(1969~71) 80%, 1970년대 중반 76%로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 단계에서 이미 경운기를 중심으로 한 農機械化가 시작되고 주택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는 했지만 아

表 5 - 6 農家의 固定資產 投資行態(戶當平均)

단위: 천원(경상가격), %

연도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식물	조투자계
1964~66	9 (52.9)	2 (11.8)	0.5 ( 2.9)	6 (35.3)	17 (100.0)
1969~71	13 (33.3)	6 (15.4)	2 ( 5.1)	18 (46.2)	39 ( " )
1974~76	49 (36.8)	19 (14.3)	12 ( 9.0)	52 (39.1)	133 ( " )
1979~81	132 (27.0)	84 (17.2)	49 (10.0)	223 (45.7)	488 ( " )
1984~86	390 (26.1)	369 (24.7)	173 (11.6)	560 (37.5)	1,493 ( " )
1987	485 (33.9)	373 (26.1)	162 (11.3)	409 (28.6)	1,430 ( " )

자료: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表 5 - 7 農家의 固定資產 粗投資(全國總計)

단위: 억원(경상가격)

연도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물	대식물	조투자계
1964 ~ 66	224	51	12	152	0.3	436
1969 ~ 71	334	157	40	434	2	968
1974 ~ 76	1,156	457	286	1,219	12	3,131
1979 ~ 81	2,787	1,763	1,024	4,651	15	10,239
1984 ~ 86	7,550	7,141	3,355	10,870	25	28,941
1987	9,083	6,987	3,027	7,523	129	26,749

작은 초기단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 商業的 農業化와 農機械化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건물과 대농구의 구성비는 크게 상승한다. 1980년대초(1979~81년 평균) 건물과 대농구의 구입비 비중은 27%이었으나 1987년도에는 37%로 10%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사실은 대동물부문이다. 농가에서 대동물에 대한 투자는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役用이 아닌 肥育販賣 목적으로 바꾸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적 농업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이 부문에 영향을 미쳐 투자지출변동을 크게 하였다. 이른바 1983~85년의 한우파동이 그것이다. 이같은 큰 파동의 후유증과 農家負債의 누증, 농업수익성의 저하로<sup>3)</sup> 농가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즉, 1984~86년간에 비해 1987년

3)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 절 참조.

의 고정자산 투자지출은 대농구와 대동식물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건물은 정체수준이다. 다만 토지만은 24% 정도 증가하였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증대한 것은 농업부문에서 별다른 所得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地價上昇에 따른 資本所得에의 기대도 큰 유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은 평균농가 단위로 본 고정자산 투자행태의 변화를 파악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농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가 토지중심에서 점차 건물 대농구에 대한 지출증대로 바꾸어져 웃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누적되고 농업여전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生產目的外에 資產으로서 가치가 곧 토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이 보였다. 특히, 1988년부터 지원되는 農地購入資金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나. 營農規模別 固定資產 投資行態의 變化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른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영농규모에 따른 個別農家の 投資에 대한 자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규모에 따른 투자자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는 어느 계층의 농업투자규모가 더 많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大農層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소농계층의 그것에 비해서 절대규모에서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조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가능한 것은 大農層의 자본에 대한 평균수익률이 小農層에 비하여 높고(이는 투자에 대한 한계효율도 大農이 小農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가정), 신규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의 평균금리가 大農이 小農계층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또한 조투자의 경우에는 기투자된 자본의 감소분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는 바 이 경우 자산규모가 큰 大農계층이 小農계층에 비하여 많음으로써 설사 두 계층의 순투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도 총투자(=조투자=신규투자+

감모부문에 대한 대체투자) 수준은 대농계층이 소농에 비하여 많게된다.

〈表 5-8〉은 농가의 1982~86까지 경지규모별 투자자본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계측한 결과이다. 자료에 의하면 1982~86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小農계층보다는 대농계층의 농업자본의 평균자본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의 경우를 보면, 0.5 ha 미만 계층의 연간기준 농업자본의 평균자본수익률이 5.46 %인데 비하여 1.5 ha - 2.0 ha 계층은 8.14 %, 그리고 2.0 ha 이상은 9.90 %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가계층별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평균조달 금리를 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자기자본과 정책금융의 비율이 높은 대농계층이 그렇지 않은 소농계층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第4章에서 분석한 바있다.

〈表 5-9〉는 농가의 경영규모별 고정자산 조투자를 시계열로 본 것이다.

表 5-8 耕地規模別 農業資本의 純收益率

경지규모\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단위 : %
0.5ha 미 만	7.05	8.88	8.53	6.50	5.46	
0.5 ~ 1	10.21	8.39	7.23	6.61	6.69	
1 ~ 1.5	11.07	8.96	8.67	7.32	6.40	
1.5 ~ 2	11.06	8.95	9.57	9.51	8.14	
2ha 이상	13.17	10.83	10.40	10.06	9.90	
농 가 평 균	10.82	9.17	8.98	8.17	7.57	

자료 : 서종혁, 설광언, 박성재, “농가의 채무이행과 금리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63, 1988.5

表 5-9 農家階層別 年間 固定資產 粗投資

연도\경지규모	0.5 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 ha 이상	단위 : 천원, %
1964 ~ 66	8 (19.5)	15 (36.6)	20 (48.8)	31 (75.6)	41 (100.0)	
1969 ~ 71	17 (23.9)	36 (49.3)	48 (67.6)	56 (78.9)	71 ( " )	
1974 ~ 76	52 (15.6)	116 (34.8)	147 (44.1)	203 (61.0)	333 ( " )	
1979 ~ 81	274 (29.1)	401 (42.6)	555 (59.0)	724 (76.9)	941 ( " )	
1984 ~ 86	970 (40.3)	1,202 (50.0)	1,580 (65.7)	1,899 (78.9)	2,406 ( " )	
1987	710 (31.5)	1,055 (46.7)	1,515 (67.1)	2,091 (92.6)	2,257 ( " )	

농가의 고정자산 조투자를 3개년 평균으로 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살펴보면 0.5 ha 미만의 零細農層과 2.0 ha 이상의 大農層 사이의 투자규모 차이는 전기간을 통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농계층이 소농계층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규모간 투자의 절대규모는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투자의 상대적인 격차는 196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중반(1964~66)에는 영세농층의 투자규모가 대농층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1984~86년)에는 이 비율이 40%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 0.5~1.0 ha의 小農層과 대농층간의 투자규모 차이 역시 축소되어 왔다 할 수 있다. 다른 계층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며, 적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농층의 투자규모가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빨리 증가할 것이라 조짐은 찾을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農業과 非農業部門의 수익성 격차가 현저하고, 農村과 都市의 삶의 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한 더욱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농업·농촌부문에의 投資誘因이 더 커지지 않는 한 대농층의 투자확대나 생산수단의 집착화는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농층의 투자가 다른 계층과 같이 계속되어 온 것은 小農經營의 경제적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농업부문으로의 이농가능성이 제약받는 현실때문에 갖는 생존에의 집착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가 계층간에 격차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부문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정자산을 토지, 건물, 대농구, 대동식물로 나누어 고정자산 전체의 粗投資 가운데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시계열로 본 것이 다음 <表 5-10>이다.

영세농(0.5 ha 미만)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엔 고정자산 조투자액 중 토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나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엔 39%로 감소하고, 1980년대 중반엔 겨우 18%선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꾸준

4) 이러한 견해는 小農經濟 일반에서 흔히 지적된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정환(1983)은 영세농의 地代負擔力이 대농층보다 크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表 5-10 農家階層別 固定資產 部門別 投資構成 變化

단위 : %

년도 구분 경지규모		0.5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ha 이상
'64	토 지	57.3	47.6	48.2	54.2	52.6
	건 물	14.6	9.0	10.0	12.8	15.8
	대 농 구	1.2	2.1	3.0	3.8	3.5
	대동식물	26.8	41.4	38.8	29.2	28.1
'74	토 지	38.5	36.2	37.4	33.5	44.3
	건 물	21.2	12.1	11.6	17.2	18.7
	대 농 구	7.7	7.8	8.2	10.3	12.7
	대동식물	51.9	44.0	42.9	38.9	24.4
'84	토 지	17.8	26.5	25.6	28.0	26.5
	건 물	28.2	27.1	24.0	21.7	24.5
	대 농 구	7.0	8.2	11.7	13.6	16.2
	대물식물	46.9	38.1	38.6	36.7	32.8
'87	토 지	31.7	39.1	27.7	35.9	34.7
	건 물	36.3	24.7	25.5	25.9	23.9
	대 농 구	4.2	11.9	11.0	12.3	13.9
	대동식물	27.7	24.2	35.8	26.0	27.4

히, 그리고 크게 비중이 상승한 것은 건물이다. 1960년대 중반엔 1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28%로 토지의 비중을 앞질렸다. 1987년에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대로 다시 크게 상승하였지만 건물의 비중 역시 36%으로 상승하여 여전히 토지보다 높다. 한편 대동식물의 비중은 변동이 매우 심하다.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는 50% 수준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지만 1960년대 중반과 1987년엔 27~8% 수준이다. 대농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비중 감소가 뚜렷히 나타난다. 영세농의 토지이외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현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영세농으로서는 토지구입에 의한 규모확대로 농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지 않나하는 점이다.

둘째, 토지구입에 의한 성장가능성의 제약을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상업적 작목, 예컨대 施設農業, 肥育牛에 역점을 둘으로써 건물과 대동식물의 투자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란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1960년대에 토지구입비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당시의 농업이 土地外에 별다른 투자방

향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1987년도 역시 토지의 비중이 늘고 대동식물의 비중이 저하된 것은 韓牛波動의 여파와 농업부문의 여전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농구의 구입비 비중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한 것은 그동안 農機械化가 質作業을 목적으로 한 영세소농층에서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계보급의 급속한 확대로 이 부문의 여전 역시 어두워진 결과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는 다른 계층에서는 계속 비중이 증가하거나 뚜렷한 감소추세가 아닌데서 추론해 볼 수 있다.

0.5~1.0ha의 小農層은 영세농층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변해 왔다. 특히, 토지구입비의 비중 감소와 건물구입비의 비중 증대, 대동식물의 비중 변동현상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한편 大農層(2.0ha 이상)의 경우는 토지부문의 비중감소는 전체적인 경향과 일치하나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토지구입에 대한 투자가 고정자산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生產力 基盤을 강화시켜 나가야겠지만 그렇다고 당장의 영세소농을 급속히 流出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유보해야 한다. 이들이 농업외부문에서 충분한 所得機會를 먼저 확보한 후 농업을 떠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영세농이라고 그동안 농업부문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오지는 않았다. 낮은 자본수익률하에서도 영세소농이 상대적인 면에서 투자위축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장의 소득기회가 농업밖에 없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농업의 부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그들이 취업여건을 갖추게 된다면 농업부문에 그렇게 줄기차게 남아있을 이유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농층이 여러 가지 여전면에서 영세소농층보다 투자확대의 여력이 있고 그럴 필요성도 크지만(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여년 동안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農業構造調整은 영세소농층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정책

을 강화한 다음에 대농 또는 전업농 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을 확고히 세우고 나서야 장기적인 金融支援政策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정과정이라는 시간을 무시한 성급한 정책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政策이라는 점을 간과한 단순한 경제주의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土地所有關係別 固定資產 投資

토지소유관계별 농가의 비교분석은 단순한 경영규모라는 量的關係에서 보는 경영계층별 분석을 보완하는 質的關係 분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지표는 地主・小作關係가 지배적인 형태를 가졌던 과거 농지개혁 이전에는 오히려 경지규모지표보다 일반적인 지표로서 활용되었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그 의의가 크게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지주・소작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農地賃貸借化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농가간의 경제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質的關係로 농가경제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토지소유관계별 농가경제의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1987년도 농가경제 표본농가중 충남・경북지역 농가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토지소유관계별 농가의 구분은 경영지 면적에 대한 賃借地面積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임차지가 없으면 自作農 임차율이 50 % 미만이면 自小作, 50 %~100 % 사이는 小自作, 100 %이면 純小作으로 구분한 결과 자작농은 표본농가의 39.5 %, 자소작 35.6 %, 소자작 18.2 %, 순소작 6.7 %로 나타났다. 이들간의 주요경제지표를 비교하면 〈表 5-11〉과 같다. 경지규모는 소자작농이 가장 크고 자소작농이 그 다음이며, 순소작농이 가장 작았다. 농가소득은 자작농과 자소작이 비슷한 약 740 만원대이며, 소자작농은 이보다 120 여만원 작은 617 만원, 순소작농은 507 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의 차이는 消費에서도 거의 비슷한 격차를 보였다. 資產을 비교해 보면 이들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자작농에 대비했을

表 5-11 土地所有 關係別 農家의 主要 經濟指標

지 품	자 작 농	자소작농	소자작농	순소작농	단위 : 평, 천원, %, 호
					평균 또는 계
경 지 규 모	3,006	3,777	4,128	2,816	3,472
소 유 지 규 모	3,387	2,908	1,287	0	2,607
농 가 소 득	7,406	7,363	6,166	5,067	7,009
농 업 소 득	4,643	4,773	4,090	3,040	4,482
가 계 비	5,761	5,932	4,874	3,902	5,537
총 자 산	47,791	39,176	19,140	7,393	36,810
총 부 채	1,715	3,031	2,665	1,992	2,375
소유지/경지	112.7	77.0	31.0	0	75.1
농업소득/가계비	80.6	80.5	83.9	77.9	80.9
총부채/총자산	3.6	7.7	13.9	27.0	6.5
농 가 호 수	154 (39.5)	139 (35.6)	71 (18.2)	26 (6.7)	390 (100.0)

때 자소작농의 총자산은 81.8%, 소작농은 40.0%, 순소작농은 15.5%에 지나지 않았다. 부채는 자작농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순소작농이었으나 資產對比 負債比率(借入金依存度)은 자작농 3.6%, 자소작 7.7%, 소작 13.9%, 순소작 27.0%로 나타났다.

이상의 비교를 볼 때 경영면적중 임차면적이 50%를 넘는 小自作 및 小作農家の 경제력이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매우 열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純小作農의 경우는 경지규모도 영세할 뿐더러 자산마저 호당 739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채는 비록 평균 이하인 199 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차입금의존도는 27%나 되어 부채문제는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小自作農과 純小作農間에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간의 경영규모 차이는 소자작농이 갖고 있는 소유규모 차이 정도이다. 그러나 固定資產粗投資를 비교해 보면 소자작농은 자작이나 자소작과 별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순소작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sup>5)</sup>. 조투자의 규모는 자작농이 가장 많은 164 만원, 자소작 142 만원, 소자작 131만

5) 고정자산 조투자 규모는 자작, 자소작, 소자작, 순소작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순소작농을 제외하고는 그룹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으로 나타났고 순소작농은 겨우 15 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내용을 보면 자작농과 소자작농이 土地構入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자소작농은 건물, 순소작농은 대동물구입에 역점을 두었다.

이상의 비교는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농가간의 經濟力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自己土地에 의존하여 경영을 하는 자작농과 자소작농가는 경제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의존하는 농가(소자작 및 순소작)는 전자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뒤진다. 소자작농은 경지규모가 자작농보다 37.3 %나 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60 만원 정도 작다. 이같은 현상은 높은 地代負擔 때문임은 물론이다. 순소작농은 자기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작농만큼 남의 토지를 임차해서 경영을 했으나, 또 경영규모로는 자작농의 93.7 % 수준임에도 농업소득은 자작농의 65.5 %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借入金依度는 평균농가의 2 ~ 4 배 이상이나 높아 농가경제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土地를 갖지 못한 농가가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토지소유관계로 보아 문제가 되는 그룹의 비중이 전체농가의 25 %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총농가의 1/4 이 주로 타인의 토지를 빌어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自家消費를 억제함으로

表 5 - 12 土地所有關係別 固定資產 粗投資比較, 1987

단위 : 천원, %

자소 작별 고정 자산	자 작 농	자 소 작	소 자 작	순 소 작	평 균
토 지	732 ( 44.7)	256 ( 18.0)	529 ( 40.4)	0 ( 0.0)	476 ( 33.9)
건 물	278 ( 17.0)	730 ( 51.3)	261 ( 19.9)	8 ( 5.2)	418 ( 29.8)
대 농 구	167 ( 10.2)	141 ( 9.9)	165 ( 12.6)	48 ( 31.4)	150 ( 10.7)
대동식물	460 ( 28.1)	297 ( 20.9)	355 ( 27.1)	97 ( 63.4)	359 ( 25.6)
계	1,637 (100.0)	1,424 (100.0)	1,310 (100.0)	153 (100.0)	1,403 (100.0)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충남·경북 표본 농가 390 호 자료

써<sup>6)</sup>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1982년도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표본농가'의 분석자료(최양부외, 1983)를 보면 당시 자작농은 전체의 51.4%, 자소작 28.3%, 소자작 15.3%, 순소작 5.0%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표본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자작농은 39.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소자작과 순소자작은 前期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25%이다.

이상의 문제점은 그동안 활발히 논의된 農地流動化를 통한 農業構造調整問題를 좀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賃借地의 확대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農地를 耕作農民에게 귀속시키는 정책이 과감하게 실천되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농지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농가차원의 中長期資金需要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 라. 經營主 年齡別 農家の 固定資產 投資

농업구조의 변화 가운데 주요한 측면의 하나가 농업노동력의 高齡化이다. 이는 基幹勞動力이 유출만 되고 새로운 유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크게 제약받고 재생산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음은 물론이다.

최근 5년간의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동향을 보면 다음 〈表 5-13〉과 같다. 1982년도에는 30대 이하의 경영주가 전체의 16.3%를 차지한 반면 50대 이상의 경영주는 51.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5년후인 1987년에는 전자가 13.6%로 2.7%포인트가 줄고 후자는 57.7%가 되어 5.9%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농

6) 소자작농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1,147 천원으로 평균농가의 86%, 순소작농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956 천원으로 평균농가의 71.7%에 불과했다.

表 5-13 農家經營主의 年齡別 分布變化, 1982~87

단위 : %

연령	1982 (A) <sup>1)</sup>	1987 (B) <sup>2)</sup>	B - A
20 ~ 29 세	2.8	1.6	△ 1.2
30 ~ 39	13.5	12.0	△ 1.5
40 ~ 49	32.0	28.7	△ 1.3
50 ~ 59	31.1	35.3	4.2
60세 이상	20.7	22.4	1.7
계	100.0	100.0	-

1)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1982년도 전국 표본농가자료, 최양부, 박성재,  
오내원 「농가경제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83. p. 129.

2)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1987년도 전국 표본농가자료。

업투자 결정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영주가 高齡化되어 간다는 것은 擴大再生產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점차 노령화되어 간다는 것은 젊은 후계자들에게 농업은 매력있는 산업이 못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나마 농업을 이어가는 後繼者 세대들은 영농의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에 농업취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조건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토지와 자산 등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30대 이하의 경영주 농가가 결코 다른 농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農地 所有面積으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50대까지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경영지면적은 30대 이하가 가장 크다. 이는 賃借面積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하며, 농업에의 성장의욕의 강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업소득도 이를 반영하여 가장 크고 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일 높다. 농업에의 성장욕구가 큰만큼 젊은 경영주가 있는 농가일수록 타인자본의 활용도도 크다. 토지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대로이고 부채도 다른 농가보다 훨씬 큰 호당 약 330만원대이다.

이와는 반대로 60대 이상의 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농지 所有面積은 30대 이하의 경우보다 약 1 단보 정도 작으나 경영규모는 약 4 단보다 작으며, 農業所得은 전자보다 156만원이나 작은 363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에 그치고 있어 전자보다 17 %포인트나 떨어진다. 또 총자산규모는 전자의 97 %로 거의 차이가 없으나 負債는 164 만원으로 전자의 50 %에 불과하다. 그만큼 영농활동이 위축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表 5-14)。

이제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 固定資產投資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자. 연간 고정자산 조투자규모를 보면 30 대 이하와 40 대의 경영주 농가들은 거의 같은 215 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50 대 경영주들은 겨우 97 만원을, 60 대 이상은 84 만원을 투자하여 젊은 경영주들에 비해 각각 45 %, 39 % 수준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경영조건이나 소득, 자산규모에서 50 대 경영주들의 경우가 그 이하의 젊은 經營主들에 비해 그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投資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젊은 계층일수록 투자에 대한 전망을 보다 낙관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0 대 경영주들이 농업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연령상으로 보아 경영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한계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현재의 경영규모상으로 보면 아직 젊은 農業經營主들의 것과 비슷하지만 머지않아 곧 노동능력이 쇠퇴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경영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투자의 축소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외에도 농가의 생애주기 (life cycle)로 보아도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 소비지출이 절정기를 이룰 때가 50~60 대이며, 앞으로는 分家에 의한 財

表 5-14 經營主 年齡別 主要 經濟指標

단위 : 평, 천원, %

구 분	30 대 이하	40 대	50 대	60 대 이상
①경 지 규 모	4,075	3,465	3,721	2,850
②소유지규모	2,668	2,599	2,795	2,305
③농 가 소 득	6,933	7,315	7,253	6,304
④농업 소 득	5,190	4,946	4,477	3,626
⑤총 자 산	34,082	35,800	40,941	32,955
⑥총 부 채	3,296	2,584	2,438	1,637
② / ①	65.5	75.0	75.1	80.9
④ / ③	74.9	67.6	61.7	57.5
⑥ / ⑤	9.7	7.2	6.0	5.0

表 5-15 經營主 年齡別 固定資產 投資, 1987

단위 : 천원, %.

경영주연령 고정자산	30 대 이하	40 대	50 대	60 대 이상
토    지	1,072 ( 49.8)	711 ( 33.0)	256 ( 26.5)	272 ( 32.5)
건    물	172 ( 8.0)	709 ( 32.9)	396 ( 41.0)	204 ( 24.4)
대 농 구	367 ( 17.1)	229 ( 10.6)	90 ( 9.3)	51 (( 6.1))
대동식물	538 ( 25.0)	503 ( 23.4)	225 ( 23.3)	308 (336.8)
계	2,150 (100.0)	2,153 (100.0)	966 (100.0)	836 (100.0)

產分割이 계속될 시점에 있는 세대라 하겠다. 따라서 무리한 경영규모의 확대보다는 타부분(주로 소비적지출)의 자금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안전한 단순재생산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고정자산의 종류별 투자비중을 보면 가장 짚은층인 30 대 이하 경영주들은 총투자의 50%를 토지구입에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세대의 경영주들은 20~30 %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건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住宅부문이 혼합된 건물은 50 대와 40 대 경영주들이 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대동물은 30 대 이하와 40 대가 규모면에서나 총투자중 차지하는 비중면에서 비슷하다. 반면에 60 대 이상에선 규모면에서는 전자에 비해 크게 뒤지나 비중면에서는 더 높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農業經營主가 짚을수록 토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경영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구입비와 대농기계구입비의 현저한 차이는 이를 설명해 준다. 반면에 60 대 이상의 高齡經營主들은 노동력이 크게 들지 않은 대동물구입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농업경영규모로 보아 50 대 경영주들도 짚은 경영주들과 큰 차이는 없으나 投資支出에서는 현저히 적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규모나 성과에서는 60 대와 그 미만층이 현저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投資사이클이 경영사이클을 한 세대 앞질러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固定資產 投資財源의 調達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中長期 金融資金의 供給規模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中長期 자금의 공급이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유도 또는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때 농가가 그 투자재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농가의 투자재원구성 역시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 한 短期的으로는 재원조달행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小農經營은 대농경영이나 타산업부문에 비해 고정자산 투자시 자기자금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소농이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회피적이며, 외부금융자금을 이용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소농이 위험회피적이라는 것은 투자규모를 축소(內的 資本制限)하여 가능한 안정선을 유지하려 함을 뜻한다. 그리고 투자재원 역시 타인 자금을 무리하게 이용하려 하기 보다는 자기자금을 이용하려 한다. 소농의 열악한 信用力, 농업생산의 위험성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이들에 대한 대출제한(外的 資本制限) 역시 투자시 자기자금 구성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소농이 투자재원을 가능한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키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단일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 단일 투자규모가 작으면 구태여 他人資金을 이용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이다.

이상의 요인은 농가가 투자시에 이용하는 財源을 가능한 자기자금에 의존하려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농가에 따라서는 자기자금의 축적이 충분하여 타인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單純再生産이나마 유지하여 현재의 생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를 해야 할 경우 자기자금이 없어 타인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투자재원의 자기자금 구성비는 높게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낮을 것이며, 투자규모는 작을 것이다.<sup>7)</sup> 즉, 경제력

7)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實證研究를 찾기 힘든 것이 우리 學界的 현실이다.

의 크기에 따라 외부자금의 구성비가 앞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충남·경북지역의 「농가경제」 표본농가의 고정자산 投資財源 構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평균 自己資金 構成比는 68.6 %로 나타났다. 즉, 투자액의 약 2/3는 자기자금으로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제조업부문을 보면 종업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小企業은 設備投資 재원의 55.8 %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고용인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中企業은 자기자금 구성비가 43.9 %로 나타나 제조업부문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投資財源의 자기자금의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表 5-16)。

이제 농업부문내에서 농가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자. 경지규모별로 보면 규모에 따라 자기자금 구성비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0.5ha 미만의 영세농은 고정자산 투자액의 93 %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금 구성비가 가장 낮은 階層은 대농층이 아닌 1.0~1.5ha의 中農層(48 %)이었다(表 5-17).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겠으나 영세농층에서

表 5-16 中小企業의 設備投資 財源構成, 1986

단위 : %

종업원수별 재원별	자기자금	차 입 금				
		금융기관	외화및외자	회사채	사채	기타
소 기 업	55.8	36.5	5.2	0.4	2.0	0.2
5 ~ 9 인	57.8	35.2	-	1.5	5.5	-
10 ~ 19	55.2	36.9	6.6	0.0	1.0	0.3
중 기 업	43.9	48.4	2.2	1.7	0.7	3.1
20 ~ 49	42.1	51.1	4.2	0.5	0.9	1.3
50 ~ 99	47.1	47.7	0.5	1.4	0.3	3.1
100 ~ 199	44.2	46.0	2.8	1.0	1.0	5.0
200 ~ 299	40.7	49.6	2.5	3.9	0.7	2.6
제 조 업	45.5	46.8	2.6	1.5	0.8	2.7

자료 : 상공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 1986.

자기자금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투자규모의 영세성, 外的 資本制限, 자금여유가 있는 兼業農의 집중분포 등이 함께 작용한 탓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정자산 투자재원의 구성을 경영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50 대 이하의 농가들과 60 대 이상의 농가들로 구분되었다. 50 대 이하의 농가들은 자기자금 구성비가 65~69 % 수준으로 전체평균과 비슷하지만 60 대 이상의 농가는 77 %로 약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表 5-18). 여기서는 투자규모의 영세성, 信用制限, 위험회피성이 주요한 인자로 작용했다 보여진다.

고정자산 투자재원의 구성을 土地所有關係別로 비교해 보면 경제력이 충실히 자작농은 자기자금 구성비가 81 %로 매우 높으나 경제력이 취약한 純小作農은 36 %에 지나지 않는다(表 5-19). 앞의 2 절에서 보았듯이 순소작농은 투자규모도 가장 영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의 64

表 5-17 耕地規模別 農家의 固定資產 投資財源 構成

	0.5 ha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 ha이상	평균
자기자금	93.1	74.4	47.5	77.7	62.7	68.6
차 입 금	6.9	25.6	52.5	22.3	37.3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5-18 經營主 年齡別 固定資本 投資財源 構成

	30 대 이하	40 대	50 대	60 대 이상	평균
자기자금	65.3	68.6	66.7	76.5	68.6
차 입 금	34.7	31.4	33.3	23.5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5-19 土地所有 關係別 農家의 投資財源 構成

구 분	자작농	자 소 작	소자작	순소작	평균
자기자금	80.6	57.1	57.1	35.7	68.6
차 입 금	19.4	42.9	42.9	64.3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를 타인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취약한 탓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재원의 구성을 自己資金과 借入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2절에서 분석한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형태와 본 연구의 목적인 中長期資金의 需要分析의 연결점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평균적으로 보면 농가는 투자재원의  $1/3$  정도만 외부자금(즉 금융자금수요)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 따라 그 편차는 매우 심하였다. 편차가 나타난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서 金融支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 第 6 章

# 中長期 金融需要函數의 推定과 展望

## 1. 純借入 需要函數의 推定

### 가. 基本模型

農家의 中長期 金融資金에 대한 需要是 크게 자금의 공급과 관련된 요인과 수요에 관련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를 간단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Delta KB_t = f(MVP_k, \gamma_B / O_f)$$

여기서  $\Delta KB_t$  : t 기중에 차입한 증장기 금융자금(순차입액)

$MVP_k$  : t 기중 투자한 자본의 한계 효율(또는 생산액)

$\gamma_B$  : 차입비용(차입금리)

$O_f$  : 자기자본 조달능력

農家에서 外部로부터 조달 가능한 자금의 금리는 대개의 경우 농촌지역의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금리로서 이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의 공급곡선이 된다. 따라서 차입비용의 증가는 공급곡선의 상방이동을 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차입금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만일 농촌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자금마다 차입금리가 相異하며, 또한 자금의 이용가능액도 다를 경우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의 공급곡선은 단순히 하나로 대표되는 대출금리만으로 나타낼 수 없다. 우리나라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장기 투자를 위한 차입자금원으로서는 연 8.0%의 정책자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연 14.0%의 상호금융이나 연 20.0%의 사채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 8.0%의 중장기성 정책자금은 한정된 공급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자금만으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농가입장에서 본 중장기 자금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차입자금의 이자율은 농가가 이용 가능한 자금의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만일 개별사업의 투자규모가 커서 몇 개의 자금원이 다른 타인자금을 사용할 시에는 이를 자금의 평균이용금리가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를 결정하는 투자의 한계효율은 生產物의 價格과 投入財의 價格, 그리고 농가의 기술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모든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生產物 가격의 상승과 높은 기술수준은 투자의 한계효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借入金에 대한 수요는 커지게 된다. 反面 投入財 價格의 상승은 投資効率을 떨어뜨림으로써 借入金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투자의 한계효율을 높이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요인 이외에도 投資資產의 價格 상승이 있다. 농업에서 投資資產 자체의 가격상승이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토지자산으로서 이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 다른 고정자산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투자자산의 가치상승은 투자자체의 한계효율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농가 전체의 자산가액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능력을 높이게 되고,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측면도 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과 투자의 한계효율 이외 농가의 자금차입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기자본 조달능력이다. 농가에서 자기자본의 조달 재원으로 이용가능한 대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저금, 농가보유 현금 및 농

가경제 잉여 또는 소득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증가는 결국 농가의 차입 자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한편 전기말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당기중에 농가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부채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외부 차입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 나. 統計模型 및 推定結果

농가의 중장기 순차입금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Q_{DFLB} = f(X_1, X_2, X_3, X_4, X_5, X_6)$$

여기서  $Q_{DFLB}$  : 농가의 중장기 순차입금(백만원)

$X_1$  : 기술진보지수(%)

$X_2$  : 전년도 말 고정자산용 부채(백만원)

$X_3$  : 전년 농산물 판매가격지수(%)

$X_4$  : 농업노임지수(%)

$X_5$  : 전년도 농가경제 잉여(백만원)

$X_6$  : 정책자금 실질금리(연, %)

농가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순차입금( $Q_{DFLB}$ )은 매 연도 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액의 차이로서 측정하였다. 농가의 기술수준( $X_1$ )은 투자에 대한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임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농업부문에 투자되었던 연구개발비를 지수화하여(1980=100)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전년도 말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수준( $X_2$ )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가의 자기자금 조달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농가의 투자에 대한 한계효율은 생산된 농산물 가격과 正의 관계가 있고, 투입재 가격과는 負의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변수로 전년도 농산물 판매가격지수(1980=100)와 농업노임지수(1980=100)를 채택하였다. 농산물 판매가격지수를 당년도 가격 대신 전년도 가격을 사용한 것은 투자년도의 생산물 가격은 예상가격

으로서 이는 전년도의 가격이 크게 감안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농가경제잉여( $X_5$ )는 농가가 당년도에 투자를 위하여 농가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1차로 이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가정하고, 이의 증가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가경제 잉여의 측정은 농가의 당년도 소득(농업+농외소득)에서 조세공과금과 가계비지출분을 뺀 잉여분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농가가 기 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분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농가가 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에 대한 대용변수이다. 농가의 차입금은 사채, 상호금융자금 및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정책금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채나 상호금융의 대출이자율이 정책금융의 이자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용변수로서 정책금융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순차입 수요함수의 추정에 이용된 통계적인 기법은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 회귀분석이다. 또한 여기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1962~86년까지의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이다. 분석에 이용된 모든 자료는 1980년을 100으로 하는 불변가격이나 또는 지수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表 6-1〉은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모형 1〉과 〈모형 2〉의 설명변수가 갖는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0.81로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보면 D-W값이 각각 2.09와 2.06으로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기술수준과 전년도 말 고정자산 투자용 부채의 수준은 당년도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순차입액의 규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이 중장기 고정자산을 위한 순차입액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술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본의 한계효율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고정자산의 투자증가가 투입요소간의 대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表 6-1 中長期 純借入資金 需要에 미치는 要因의 回歸分析 結果

설명변수	< 모형 1 >		< 모형 2 >	
	b-값	t-값	b-값	t-값
절 편	21,468.6	0.48	18,989.2	0.41
기술진보지수(1980=100)	340,930.8	1.05	321,601.0	0.95
전년말 고정자산부채(백만원)	-0.07	-0.97	-0.06	-0.89
전년도 판매가격지수(1980=100)	1,385.8	3.19**	1,506.6	2.57**
농업노임지수(1980=100)	-13,041.5	-4.62**	-13,798.9	-3.67**
농가경제잉여(백만원)	-0.15	-3.12**	-0.17	-2.23*
정책자금실질금리(%)	-	-	-1,167.1	-0.32
$\bar{R}^2$	0.81		0.81	
F-값	12.42		9.7	
D-W값	2.09		2.06	

다. 이와 같은 추측은 농업노임지수의 상승이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 전년도 말고정자산의 부채수준 증가가 당년도의 순차입 수요의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농가에서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농가의 자산과 부채의 균형상실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농가의 자산운용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로 두 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가 부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와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농가생산 농산물가격의 상승은 농가의 중장기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자금의 수요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농업투자의 한계효율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고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의 농가경제잉여의 증가는 금융자금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가의 자기자본에 대한 조달능력을 크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농가지원 중장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농가의 순차입금 수요증가에 부의 효과를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선행 연구결과(Lins(1970))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중

장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농가 수준에서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고 이때 조달된 타인자본은 정책금융 이외에 이자율이 다른 종류의 자금이 함께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정책 금융의 대출금리는 다른 자금의 이용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의 변동이 자금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資產均衡模型과 金融資金 需要

### 가. 基本模型

經營과 家計가 혼합형태인 農家도 企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농가의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농가의 자산과 부채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첫째, 농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산과 부채의 구성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둘째, 농가의 효용함수는 여러 형태의 자산과 부채가 가져다 주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수익으로 구성된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고정자산,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며,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금전적 수익은 영농소득(자산소득분을 뜻함)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채가 가져다 주는 금전적 소득은 이자지불로 인한 負의 소득이 있다. 비금전적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金融資產의 非金錢的 收益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비금전적 수익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금융자산은 이것이 갖는 높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불행한 사태에 대한 대비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편의성, 그리고 가치보존의 안정성에서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

금융자산이 갖는 비금전적 수익의 측정은 사실상 매우 곤란하나 아래와 같은 가정으로 대략적인 측정이 가능하다.<sup>1)</sup> 즉,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금융자산이 농가에 가져다 주는 여러 형태의 비금전적 수익의 합은 일정 기간중에 그와 같은 비금전적 수익을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며, 이것의 합은 결국 금융자산의 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Sigma X_{ijt} = SFA_{i,t-1} + IFA_{i,t} = SFA_{i,t}$$

단,  $i(i=1, \dots, M, DD, TD)$  : 여러 형태의 금융자산  
 $j(j=1, \dots, LP, VP)$  : 여러 형태의 비금전적 수익  
 $t$  : 시간  
 $X_{ijt}$  :  $i$  금융자산의  $j$  번째 비금전적 수익  
 $SFA_i$  : 회기말의  $i$  금융자산의 스톡  
 $IFA_i$  : 회기종  $i$  금융자산에 투자된 순금액  
 $M$  : 화폐  
 $DD$  : 예금(demand deposit)  
 $TD$  : 저금(time deposit)  
 $LP$  : 유동성 프레미엄(liquidity premium)  
 $VP$  : 가치보상(value preservancy)

## ② 未使用 信用의 非金錢的 收益

농가가 농업경영 또는 가계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자본을 이용할 경우 농가는 차입한 타인자본에 대하여 이자지불형태로 금전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농가에 대해서 효용의 감소를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금전적인 이유에 의한 효용의 감소 이외에 또 하나 負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신용<sup>2)</sup>의 감소에 따른 비금전적 수익의 감소이다. 이는 특히,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未使用信用(unused credit)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들과 같이 유동성을 가

1) 여기서 금융자산은 금전적인 수익이 일단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 여기서 신용이란 농가의 타인자본 차입의 여력을 뜻함.

지며, 이는 기대가 빚나간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의 저장으로 Baker (1968)는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未使用信用의 확보는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비금전적 수익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물론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유동성 프레미엄이나 불행에 대한 대처 등을 의미한다. 미사용 신용이 제공하는 비금전적 수익을 합산한 것의 가치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대략적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2) \Sigma X_{uncjt} = UNC_t = L_{ev} (\Sigma SFA_{it} + \Sigma SPA_{kt} - \Sigma SDEBT_{mt})$$

$$- \Sigma SDEBT_{mt}$$

$$\text{단 } \left( L_{ev} - \left| \frac{\Sigma SDEBT_{mt}}{\Sigma SFA_{it} + \Sigma SPA_{kt} - \Sigma SDEBT_{mt}} \right| \right) \geq 0$$

여기서  $X_{uncj}$  : 미사용 신용에 의한  $j$  형태의 비금전 수익

$UNC$  : 농가보유 미사용 신용

$L_{ev}$  : 대출기관이 당해 농가에게 요구하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산)

$SDEBT_m$  :  $m$  형태의 부채 보유액

$SPA_k$  :  $k$  형태의 고정자산 보유액

식 (2)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부채비율(Lev)과 농가의 자기자산의 곱에서 농가보유 부채액을 차감한 것이 농가의 미사용 신용보유액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사용 신용이 가져다 주는 비금전적 수익의 합과 같음을 가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가정은 농가가 바람직하게 유지해야 할 부채비율(Lev)을一定하다고 보는 것과 농가 스스로 資本의 內的 制限(internal credit rationing)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신용도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비금전적 수익을 가져다 주며, 이는 결국 농가의 부채와 순자산, 그리고 Lev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농가의 부채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③ 資產分配의 均衡條件

어느 一定 시점에서 농가가 보유하고자 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과 부채의

수준은 그 농가의 純資產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은 制約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quad M + FA_1 \cdot P_{FA1} + FA_2 \cdot P_{FA2} + \dots + FA_n \cdot P_{FA_n} + \\ PA_1 \cdot P_{PA1} + PA_2 \cdot P_{PA2} + \dots + PA_m \cdot P_{PA_m} - DEBT_1 \cdot P_{DEBT1} - \\ DEBT_2 \cdot P_{DEBT2} - \dots - DEBT_t \cdot P_{DEBT_t} = NW$$

여기서  $M$  : 현금 보유량

$FA(i=1 \dots n)$  : 현금이외의 금융자산 보유량

$P_{FA}(i=1 \dots n)$  : 금융자산 단위당 가격

$PA(j=1 \dots m)$  : 고정자산 보유량

$P_{PA}(j=1 \dots m)$  : 고정자산 단위당 가격

$DEBT(k=1 \dots n)$  : 부채 보유량

$P_{DEBT}(k=1 \dots n)$  : 부채 단위당 가격

$NW$  : 순자산 보유액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純資產規模의 制約下에서 여러 형태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변화를 통하여 효용을 극대화 할 것이며, 이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2) \quad \text{Max } U = U(M, FA_i, PA_j, DEBT_k)$$

Subject to

$$(3) \quad M + \sum P_{FAi} \cdot FA_i + \sum P_{PAj} \cdot PA_j - \sum P_{DEBTk} \cdot DEBT_k = NW$$

위에서 농가가 금융자산, 고정자산 및 부채를 보유함에 따른 효용의 변화는 위와 같은 여러 형태의 자산 및 부채가 가져다 주는 기대가치, 기대 수익의 분산 및 그의 계측하기 어려운 비금전적 수익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식 (3)에서 각 자산의 단위당 가격  $P_{FA}$ ,  $P_{PA}$  및  $P_{DEBT}$ 는 각 자산이 갖는 기대가치, 수익의 분산 및 그의 비금전적 수익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가정하면 각 형태의 자산 및 부채 보유의 적정배분(optimal portfolio)의 균형 조건은 식 (2)와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4) \quad \frac{MU_M}{P_M} = \frac{MU_{FA1}}{P_{FA1}} = \frac{MU_{PA1}}{P_{PA1}} = \frac{MU_{DEBTk}}{P_{DEBTk}}$$

여기서  $MU$  : 한계 효용

즉, 각 형태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대되는 한계효용은 모두 같아야 농가의 총효용은 극대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계효용은 특정자산의 한 단위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총효용의 양을 의미한다. 이때 부채는 농가에 負의 效用을 제공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자산의 한 단위 금액에 대한 한계효용이 ( $\frac{MU_{FAi}}{P_{FAi}}$  또는  $\frac{MU_{PAj}}{P_{PAj}}$ ) 한 단위 금액에 대한 부채가 가져다 주는 한계효용 ( $\frac{MU_{DEBTk}}{P_{DEBTk}}$ )보다 클 경우 농가는 부채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統計模型 및 推定結果

### ① 統計模型

앞에서 설명한 농가의 금융 및 고정자산과 부채수준의 균형조건으로부터 각 자산과 負債水準에 대한 需要函數의 推定이 가능하다. 물론 각 자산의 수요함수의 추정은 個別의 단일방정식 모형으로도 가능하겠으나 各函數가 갖는 상호관계로 각函數가 개별의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에 비독립적인 관계를 갖으며, 따라서 연립방정식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방법이 편기되지 않은 파라메타를 얻기 위해서 보다 적합하다. 各函數의 推定을 위한 統計模型은 다음과 같이設定하였다.<sup>3)</sup>

- (1)  $SFA = a_0 + a_1 X_1 + a_2 X_2 + a_3 X_3 + a_4 SPA + \varepsilon_{SFA}$
- (2)  $SPA = b_0 + b_1 (X_2 - Z_1) + b_2 SFA + \varepsilon_{SPA}$
- (3)  $FDEBT = c_0 + c_1 W_1 + c_2 W_2 + c_3 SPA + \varepsilon_{FDEBT}$
- (4)  $VDEBT = d_0 + d_1 W_1 + d_2 V_2 + d_3 SPA + \varepsilon_{VDEBT}$

여기서 SFA : 농가보유 금융자산(현금, 준현금) 연말 보유액  
(단위 :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SPA : 농가보유 고정자산 연말 보유액  
(단위 :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FDEBT : 농가보유 고정자산 구입용 연말 부채액  
(단위 :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VDEBT : 농가보유 단기성 부채의 연말 보유액

3) 本統計模型은 Penson(1972)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단위 :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a_0, b_0, c_0, d_0$  : 각 함수의 절편

$a_1 \dots a_4, b_1 \dots b_2, c_1 \dots c_3, d_1 \dots d_3$  :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X_1$  : 정기예금금리(연, %)

$X_2$  : 농업자본의 투자수익률(연, %)

$X_3$  : 농가실질소득(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Z_1$  : 농가이용 중장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연, %)

$W_1$  :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연, %)

$W_2$  : 연간 농가전체에 공급된 중장기 정책자금 총액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V_2$  : 연간 농가전체에 공급된 단기정책자금총액

(백만원, 1980년 불변가격)

앞에 제시된 (1)~(4)의 종속변수인 SFA, SPA, FDEBT 및 VDEBT은 농가가 보유하고자 희망하는 자산과 부채의 적정수준으로 각각의 현재 보유수준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추정과정에서 당기의 적정 보유수준을 전기 말 보유수준과 관련한 時差函數(lag function)로 표현할 경우 설명변수에 時差變數가 포함되고 이에 따른 높은 自己相關(auto correlation)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SFA), 고정자산(SPA), 그리고 고정자산용 부채(FDEBT)와 단기부채(VDEBT)만으로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농가의 금융자산은 현금, 예저금 및 유가증권 등이 있으나 그중 현금과 유가증권은 절대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예저금의 경우에는 그 구별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금융자산 하나로 구분 짐계하였다.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토지 이외의 농업용 고정자산이 갖는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농업투자시의 수익률의 구분계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재산을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단부채의 구분은 농가의 채무행위가 장·단기 차입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이 본분석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 짐계하였다.

금융자산의 수요함수에서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자산의 수요량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금융자산이 갖는 높은 유동성과 가치

보존의 역할 이외에도 금전적 수익(예금이자)이 금융자산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의 실질소득의 증가는 금융자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거래적 동기의 증가로 화폐수요가 증가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농업투자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증가는 농가의 금융자산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금전적인 수익의 증가로 보다 많은 농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농가의 금융자산과 고정자산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는 고정자산의 증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필요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정자산의 수요함수에서 농업부문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자본수익률과 중장기 대출금리의 차의 증가는 농가의 고정자산 보유 수준을 높게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투자에 대한 순수익률의 증가는 투자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고정자산의 보유수준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용 부채의 수준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자기자금의 조달능력과 투자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대출이자율의 인하는 보다 많은 차입을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투자를 위한 차입자금의 금리로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연 14.5 %)를 선택한 것은 중장기 투자를 위한 타인자금중 상호금융의 비율이 가장 높고 또한 사채나 정책자금의 금리의 변동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금리의 대용변수로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중장기 정책자금은 그 이자율이 농가의 예금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이의 공급량의 증가는 농가의 투자자금의 평균조달금리를 인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의 증가는 농가의 중장기 차입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농가의 고정자산 보유수준은 고정자산용 부채의 수준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가의 고정자산 보유액의 증가는 농가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며 이는 농가가 금융기관에 대한 미사용 신용의 증가여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보유수준이 크다는 것은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기에 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이는 결국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보다 많은 차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성부채(VDEBT)의 수준에 미친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나 단기정책자금 공급액은 앞의 고정자산 부채의 수요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가의 고정자산 보유액의 증가가 단기성 부채의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정의 관계를 가정하였으며, 이는 고정자산 규모가 클수록 보다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단기성 타인자금의 수요는 보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1)~(4)의 통계적인 함수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最小自乘法에 의한 模型(simple regression model, OLS)과 制限情報最尤法(limited-information maximumlikelihood method, LIML)에 의한 聯立方程式模型이 分析에 이용되었다. 分析에 利用된 소득, 자산 및 부채에 관한 資料는 1970~87년까지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농림수산부)」 중 각 영농규모별 평균통계량과 전체 농가의 평균통계량을 이용하여 각 계 층별로 총액(해당계층 평균금액 × 해당계층 총농가수)을 산정하여 이용하였다(따라서 총 표본수는 6(계층) × 18(년) = 108개임). 한편 대출 및 예 금금리는 농협중앙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평균 농업자본 수익률은 각 계 층에 대하여 「농가경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매년 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였다.

## ② 推定結果

〈表 6-2〉~〈表 6-5〉는 각각 농가의 금융자산, 고정자산, 중장기성 부채 및 단기성 부채의 수요함수 계측결과이다.

먼저 금융자산의 수요함수의 계측결과를 보면 농가의 실질소득과 금융자산의 수요는 정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소득의 증가에 따라 거래적 동기에 따른 높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수요증가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정기예금 금리의 증가는 농가의 금융자산 보유수준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자본 수익률의 증가는 금융자산의 보유수준을 떨어뜨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의 증가가 고정자산에 대한 보

表 6 - 2 金融資產部門 需要函數 推定結果

설명변수	단위 : 백만원, %	
	LIML	OLS
Intercept	240.020*** (2.71)	153.160*** (3.43)
정기예금금리	-2,753.6 (-0.42)	-2,404.2 (-1.4)
농가실질소득	0.91*** (3.45)	0.18*** (4.3)
농업자본수익률	-5,638,650*** (-3.35)	-957,463*** (-3.07)
실질고정자산스톡	-0.155** (-2.47)	0.014 (1.41)
R <sup>2</sup>	0.60	0.78

\* ( )의 숫자는 t-값임.

表 6 - 3 固定資產部門 需要函數 推定結果

설명변수	단위 : 백만원, %	
	LIML	OLS
Intercept	188,158 (0.65)	736,606*** (0.373)
자본수익률 - 중장기금리	20,630 (0.26)	5,430 (0.17)
실질금융자산스톡	15.28*** (12.37)	10.77*** (14.31)
R <sup>2</sup>	0.63	0.63

表 6 - 4 固定資產負債 需要函數 推定結果

설명변수	단위 : 백만원, %	
	LIML	OLS
Intercept	-55,996*** (-3.14)	56,541 (0.92)
상호금융대출금리	-11,861*** (-3.11)	-7,250*** (-4.48)
실질중장기자금공급액	0.05*** (5.15)**	0.10** (2.4)
실질고정자산스톡	0.029*** (9.09)	0.02*** (8.33)
R <sup>2</sup>	0.57	0.59

表 6-5 短期性負債 需要函數 推定結果

설명변수	L I M L	OLS	단위 : 백만원, %
Intercept	-22,647* (-1.61)	-35,333 (-0.77)	
상호금융대출금리	-7,492*** (-2.56)	-351 (-0.19)	
실질단기정책자금공급액	0.29*** (6.38)	0.12*** (5.34)	
실질고정자산특	0.032*** (10.1)	0.02*** (9.25)	
R <sup>2</sup>	0.62	0.62	

유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고정자산의 보유수준이 증가가 금융자산의 보유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현상은 두 종류의 자산간에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대체의 관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본수익률이 금융자산의 수요에 미치는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 ( $\varepsilon = -1.5$ )을 통하여 그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농가에서 고정자산 보유의 증가는 농가의 미사용 신용(unused credit)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금융자산이 갖는 특성인 높은 유동성과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농가는 금융자산의 보유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정자산의 보유에 대한 수요함수에서 자본수익률과 중장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자본수익률이나 대출금리가 고정자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보다는 추정에 이용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고정자산 투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타인자금의 평균금리로서 불충분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가보유 금융자산의 보유수준이 고정자산의 보유량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다.

농가의 단기성 부채의 규모는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인하에 따라 더욱 커지며, 단기성 정책자금의 공급액과도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정책자금의 공급확대는 결국 농가의 부채규모만을 확대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성 정책자금이 부채의 규모에 미치는 탄성치는 0.01로서 단기성 정책자금 규모의 10% 증가는 1.0%의 단기성 부채 증가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매우 낮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정자산을 위한 중장기성 부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중장기성 부채인 고정자산 투자용 부채의 규모 결정에 미치는 제변수의 회귀계수를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호도 모두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타인자본의 평균금리를 대리하여 사용한 상호금융의대출금리와 중장기 정책자금의 공급액은 고정자산부채의 증가에 각각 負 및 正의 관계를 보였다. 즉, 농가의 고정자산용 중장기 부채는 평균이용금리가 상승하면 감소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정책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그 규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각각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장기 정책자금의 공급규모가 10% 증가했을 때 고정자산용 부채의 규모는 1.3%(탄성치 = 0.13) 증가하며, 상호금융 이자율이 10% 감소할 때(예 : 연 14.0% → 연 12.6%) 고정자산용 부채는 0.3%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정책자금의 규모 및 상호금융의 대출이자율의 변화에 매우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고정자산용 부채규모에 고정자산의 규모가 正의 효과를 보인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자산의 규모확대는 보다 많은 타인자본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가가 금융자산의 보유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경우 고정자산의 증가는 농가의 미사용 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경우 농가는 부채의 증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미사용 신용의 증가를 감소시키려 하고, 이 과정에서 농가의 고정자산 부채는 증가하게 됨을 뜻한다.

### 3. 中長期 政策金融의 需要展望

앞장에서 우리는 農家の 中長期投資를 위한 他人資本의 平均使用金利가 연 12.5%이고, 農家の 投資에 대한 限界効率(실제로는 固定資本의 平均收

益率로 계측)의 平均이 연 7.9 % (1987년 기준)임을 分析하였다. 또한 우리는 위와 같은 資本의 供給價格(金利)과 需要價格(資本收益率)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農家에서의 固定資本에 대한 投資가 계속(대부분의 경우 單純再生産을 위한 投資)되는 것은 農家經營主나 그 家口員이 農業以外의 他部門으로 職業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 즉, 農家勞動資源의 移動性이 매우 낮다는 것과 그에 따라 農家는 資本收益率과 資本의 供給價格間의 차이를 自家勞動에 대한 報酬의 축소로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農家の 中長期 投資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中長期 金融資金에 대한 수요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다.

農家에서의 相對적으로 낮은 投資收益率에 따른 投資意欲의 감퇴는 <表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業의 장래에 대한 많은 농민들의 비판적인 전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農業에 대한 전망이 비교적 있다고 생각하는 농가의 비율이 1982년에는 전체의 16.5%였으나 1987년에는 약 반으로 줄어든 8.4%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편 별로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1982년에 약 35% 수준에서 1987년에는 전체의 약 52%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농민은 1982년에 약 42%에서 1987년에는 약 38%로 이 계층의 농가 역시 약 4%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가전체의 새로운 시설투자와 이

表 6-6 農業의 將來性에 대한 農民反應의 變化

연도	장래의 전망이 있다 %	어떤면에서 는 전망이 있다. %	별로없다 %	무응답 기 %	계 (응답자수) 명
1982	16.5	42.1	34.9	6.5	100 (1,480)
1983	10.9	39.0	47.6	2.5	100 (1,646)
1984	12.0	40.0	46.2	1.6	100 (1,815)
1985	9.1	38.2	49.7	3.0	100 (1,811)
1986	6.8	35.1	55.2	2.9	100 (1,671)
1987	8.4	37.8	51.6	2.3	100 (1,831)

자료 : KREI 여론설, 각년도.

에 따른 중장기 금융수요의 증가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농업의 자본 수익률이 낮은 상태하에서 농가는 현재 비교적 금리가 낮아 농가 수준에서의 평균 자본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공급규모가 매우 제한된 상태하에서 대출금리의 인하는 중장기 투자의 평균금리를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의 해외개방은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농업투자에 대한 자본의 한계효율이 현재 보다 더욱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하에서 농가의 중장기 투자에 대한 금융수요는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정책금융의 수요에 대한 전망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농가에서 중장기 투자에 이용하고 있는 정책금융 이외의 타인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으로의 대체이다.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타인자본중 중장기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사채(연리 약 20 %)와 상호금융(연 14.0 %)으로 충당되는 나머지 70 %에 대한 제도금융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둘째, 농가의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정책금융의 공급확대이다. 농업전체의 위축된 신규투자 분위기하에도 연간 약 4.0 %씩의 투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금융이 추가로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1987년말 현재 약 62만 정보로 추정되고 있는 小作地의 自作地化를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이다. 그동안 매년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小作農地의 증가로 농가는 막대한 小作料를 지불하고 있으며, 부채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약 42만정보에 대한 농가의 자불 소작료는 연간 약 5,000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작료의 형태로

---

4)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 1985~87年間 전체 농가의 조투자 증가율의 계산에 의함.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됨으로써 농가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小作農地의 自作地化에 대해서一部에서는 막대한 소요자금의 이유를 들어 反對의 입장을 취하면서 小作農地의 流動化促進을 통하여 경영규모의 擴大를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은 妥當性을 갖는一面이 없지 않으나 農地의 小作地化를 인정함으로써 農地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土地의 生產性은 매우 떨어짐으로써 農業發展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특히, 土地는 그것이 갖는 공급의 제한성 때문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가치는 상승하게 되며, 따라서 小作農地의 인정을 통한 농지의 유동화정책이 계속될 경우 農地의 所有者는 그 소유권을 포기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또는 소득세의 중과세와 같은 정책적인 조치를 병행 할 필요가 있다.

農業部門의 中長期 政策金融에 대한 需要展望은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하기 어렵다. 이는 정책금융이 갖는 정책수행의 수단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사실의 분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인 가치판단 위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판단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포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중장기 정책금융이 전체 농업금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도 설정해야 할 판단기준의 하나이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는 뒤의 연구자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현재 농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농업부문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매우 낮으며, 또한 농가수준에서의 투자를 위한 타인자본의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융자금의 공급은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작지화는 정책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석 코자 한다. 따라서 현재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자금이나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보상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제외되었다.

1987년 자료를 기초해서 1988년에 필요로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규

表 6-7 農業部門의 中長期 政策金融의 需要推定(1988年 基準)

區 分	總需要額(年末殘額基準)
1987 年 公급실적	21,000 억원
追加需要	9,950
私債 등 단기성 자금대체	5,600
신규고정자산 투자증가	990
非農民 所有 農地의 自作地化	3,360
계	30,950

\* 農家の 負債대책 및 수입개방과 관련된 보상 및 구조조정 자금과 같은 특별정책금융은 고려치 않았음.

보는 얼마인가를 추정한 결과는 <表 6-7>과 같다. 먼저 1987년 말 농업부문에 공급된 중장기 정책금융의 총액(年末殘額 基準)은 약 2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7년 말 기준농가의 중장기 투자를 위하여 조달한 타인자본(전체투자액의 약 30%) 중 정책금융의 비율은 약 31%에 불과한 실정이다(本研究를 위한 충남·경북지역 농가조사 결과) 따라서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으로 대체에는 연간 약 5,600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87년도 중 총농가 조투자액(약 26,749 억원) 중 사채 및 단기성자금에 의하여 조달된 부분의 약 21% 수준( $= 0.3 \times 0.69$ )이다.

한편 고정자산투자(조투자 기준)의 증가는 연간 약 4.0%씩 증가하고 있으며(1985~87년의 3개년 평균, 「농가경제조사결과」 자료로부터 산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990억원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자작지화를 할 연간 소요자금은 약 3,360 억원으로 측정되었다. 1987년 말 기준 부재지주 농경지의 규모는 약 42만 정보로 추정되며 (농립수산부), 이의 자작지화를 하는데는 약 15조 1,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농경지 평당 가격 12,000원 기준). 그러나 그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이때 농가의 타인자금비중은 총소요액의 30%를 가정하였다.

19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부문에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정책자금의 규모는 약 9,95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농협중앙회

의 연구결과(1987)와 박진환(1987)의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가의 농기계 및 농지구입에 대한 투자수요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중장기 금융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농가의 이 부문에 대한 중기적인 금융수요를 전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7년의 경우 농기계 및 토지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중장기 금융에 대한 추가적 수요(純借入 基準)는 약 6,750 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988년의 경우에는 6,140 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중장기 자금에 대한 자금수요를 분석한 박진환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농후계자들의 자금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가호당 중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의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38.6%인 반면 1,000만 이상이 전체의 61.4%였다. 그리고 조사 당시 후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700만원의 정책금융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하는 농가는 전체의 87.1%였다. 만일 영농후계자와 일반농가간에 중장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sup>5)</sup> 전체농가의 중장기 정책자금의 수요를 추정하면 호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8조원(스톡으로서의 수요)으로 추정되어(1,000만원 × 180만농가),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정책자금 2조1천억원(1987년 말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금융은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농업부문의 구조개선이나 부채대책을 위한 중장기 자금의 수요를 제외하고도 연간 약 3조3천억원(연말 잔액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2조1천억원(1987년 말 기준) 보다 약 50%가 증가한 금액이다.

---

5) 실제로 영농후계자와 일반농가간에는 투자 등 농업경영 활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후계자들은 대부분이 40세 이하의 연령층이며,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다 상업적인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第 7 章

### 要約 및 結論

상업적 농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의 고정자본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투하된 고정자본은 여러 생산기간에 걸쳐 생산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固定資本投資에 이용되는 자금은 그 자본의 회임기간에 상응하는 中長期性 자금이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그동안 농가에 공급되어 온 중장기성 자금은 거의가 정부의 지원에 의한 政策資金이었으며, 그 자금규모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농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이용된 자금 가운데는 적절치 못한 短期性 資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자금의 공급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지배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중장기 자금의 需給不均衡이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이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응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중장기 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한으로 정책결정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현단계의 연구수준을 정리하고 농가의 부문별 중장기 자금 수요 현황과 중장기 자금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농가의 중장기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함으로써 중장기 자금 공급과 관련된 제반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本研究에 이용된 기본적인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하나는 農林水產部의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에 발표된 1964~198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도 충남·경북지역의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390호)의 농가소득 및 투자 등에 대한 기초자료이다. 이외에 농협 등 농업금융기관의 농업금융통계에 대한 각종 자료가 이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농가의 자금운용표를 이용한 자산운용분석과 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차입자금 수요함수와 자산배분모형의 추정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이것이 갖는 정책적인 함축성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총고정자산 스톡은 1987년 말 현재 약 52조 5천억원(경상가격)으로 추산된다. 과거 25년간(62~87)의 총고정자산 증가율 198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4.5%씩 증가한 셈인데 1970년대에 특히 급신장(연평균 8.4%)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연평균 5.0%씩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중 가장 빠른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은 대농구이며, 그 다음이 대동물, 건물 순이었다.

2. 농가가 활용하는 고정자산(소유 및 임차 고정자산)의 源泉別 구성을 보면 상속 및 증여에 의한 것이 약 37%로 가장 높고, 財政部門支援에 의한 것이 약 27%, 자기자본의 축적에 의한 것이 약 18% 정도였다. 반면 他人所有分(賃借地 및 고정자산 부채)은 약 18%인데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 농가의 固定資產投資에 대한 제도금융의 기여도는 1980년대초까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제외한 農業固定資本 形成에 대한 제도금융 공급액의 비율은 1965년의 0.2%에서 1980년에 40.1%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5년엔 20.0%까지 감소하였다.

4. 농가의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자금 공급을 거시적으로 보면 '80년 이후 연평균 9.0%씩 증가하여 1987년중에는 약 2,969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었다(순공급액기준). 이는 '87년도중 농가 총 조투

자액 2조 6,755억 원의 약 10%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농가는 연간 총투자액(조투자)의 약 70%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차입자금중 정책금융의 비중은 약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5. 농가조사에 의한 미시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정자산 투자재원의 약 70%가 자기자금이고, 30%정도가 외부자금으로 나타났다. 즉, 金融資金은 고정자산 투자액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이 금융자금중 약 30%만이 중장기성 제도금융으로 충족되며, 나머지는 단기성 제도금융이 45%, 私金融이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금의混用은 평균 부담이율을 높여 경영수지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각 자금의 상환기간 차이로 농가의 자금운용을 펫박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평균 농업자본 수익률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최근의 농업 여건에서 볼 때 농가의 합리적 자금이용과 채산성 개선을 위한 저리 중장기자금의 공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농가의 중장기 자본투자를 위한 수요가격 즉 투자자본의 평균 수익률(농가보유 고정자산 총액에 대한 평균자본 수익률로 계측)은 '65년이후 매년 감소하여 '70~'73년에는 연평균 15.4%~19.9%, '78~'80년에는 6.9%~9.3%, 그리고 '85~'87년에는 7.9%~8.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농규모별 평균 자본수익률을 보면 1.0ha이하의 영세소농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1.0ha미만의 경우 전체농가의 약 55%가 자본수익률 5.0%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1.0ha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농가의 약 48%가 자본수익률 10.0% 이상 계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자본 수익률도 전자 가 약 6%, 그리고 후자가 약 8% 수준이었다.

7. 한편 중장기 자본투자를 위한 자본의 공급가격 즉 투하자본중 타인자본의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연리 12.5%(1987년 농가조사 결과)로서 전체 농가의 평균자본수익률 연 7.9%보다 4.6%가 높은 수준이다. 한편 총 투하자본에서 자기자본 부문의 기회비용(상호금융 1년이상 정기예탁금 금리 11.0% 기준 적용) 까지 감안한 투자자본 전체의 평균 자금이용 비용은 연 11.5%로서 이것 역시 자본의 평균수익률 연 7.9%보다 3.6%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경지규모별 타인자본에 대한 평균 지불이자율을 보면 계층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영세농(0.5 ha 미만)의 연 13.5 %와 1.0~1.5 ha 계층의 소농이 연 16.4 %로서 2.0 ha 이상 대농계층의 연 11.5 %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총투자자본의 평균 조달비용을 보면 계층간의 차이는 더욱 작아 전계층이 11.0~12.2 %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8.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전년도 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아 증가하며 농가경제잉여의 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또 중장기 정책자금의 실질금리나 전년말 부채 수준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資產配分模型分析(Portfolio balance approach)으로는 중장기 금융자금의 수요가 상호금융의 대출금리에는 負의 영향을 받고 중장기자금의 공급액과 연말 고정자산 스톡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중장기금융 수요는 농가의 농업에 대한 投資意慾이나 낮은 농업자본수익률을 감안할 때 신규투자를 위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중장기 금융자금 수요에 대한 정책자금의 공급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문에 대한 潛在需要는 크다 할 수 있으며 연간 조공급액 기준 약 9,95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농가가 고정자산 투자에 이용한 단기성 자금의 대체와 신규투자에 따른 수요, 그리고 비농민 소유 토지의 自作地化를 위한 자금공급의 측면에서 중장기 제도금융의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고 이자율을 인하 시켜 농가의 수지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자금공급의 확대와 금리인하는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켜 부채누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나 기존자료의 분석 결과 고정자산용 부채의 규모에 대한 政策資金 供給量 및 利子率의 탄성치가 낮은 것으로 볼 때(각각 0.13과 0.03)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郭竝燮, “日本과의 比較에 따른 우리의 農業資金 支援方案”, 「農村經濟」 4 (4), 1981. 12. KREI, pp. 36~46.
- \_\_\_\_\_, “農村私債 市場의 經濟的 効率性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 4 (3), KREI, 1981. 9.
- 具石謨, “우리나라의 私債金融市場의 研究”, 「金融」 제 29 권 10 호, 全國銀行聯合會, 1982.
- 具成烈, “家口規模과 年齡 構成이 消費支出에 미치는 影響”, 「한국개발연구」 4 권 1 호, 1982. 3, pp. 84~103.
- 金基成,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構造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5 次年度 評價報告書. 1983. 12.
- 金秉主, 「韓國經濟과 金融」, 博英社, 1984.
- 金成勳의, 「農村金融制度의 比較研究」 - 상호금융, 신협, 마을금고를 중심으로-, 國립농업경제연구소, 1976. 9.
- 金榮喆, “우리나라 農家の 借入金 構造에 관한 實證的 考察”, 「韓國農業의 諸問題」 3 칡, KACF 1983, pp. 262~278, 「調查月報」, 1980. 7.
- 金榮喆,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 構造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5 次年度 評價報告書. 1983. 12.
- \_\_\_\_\_, “農業金融構造의 變遷”, 「韓國農業의 近代化 過程」, KREI, 1980
- \_\_\_\_\_, “農家の 借入金 償還에 대한 이론적 考察”, 「農協調查月報」, 農協中央會, 1978. 12, 「韓國農業의 諸問題」 3 칡, 1983, pp. 232 ~241.
- \_\_\_\_\_, “農村의 私債利子率 決定 要因에 관한 理論的 考察”, 「農村經濟」 2 권, 1979, pp. 38~46.

- 金 哲, 「長短期 農業資金 需要推定을 위한 접근」－제 2 차 경제개발 5개년을 중심으로－, 서울대 碩士學位 論文, 1968.
- 金顯俊, “우리나라 農家의 消費構造”, 「農協調查月報」 28 (9), KACF, 1983. 9.
- 金顯俊, “農業資金의 利子率에 관한 小考”, 「韓國農業의 諸問題」 3집, 1983, pp. 292~301, 「調查月報」, 1982. 10.
- 金弘範, “公金融市場과 私金融市場” 「金融」 29 (11), 全國銀行聯合會, 1982.
- 南相祐, 「韓國企業의 財政行態」, KDI, 1979. 6.
- 文八龍, “農業金融의 政策課題”, 「農業政策研究」 8 (1), 1981. 12.
- D.C콜·朴英哲, 「韓國의 金融發展 : 1945~80」, 韓國開發研究院, 1984.
- 朴英哲, 「韓國經濟와 金融」, 博英社, 1984.
- 尹皓燮,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構造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5次年度 評價報告書, 1983. 12.
- 李廷湧, “農林水產 資金支援의 機能的 分析”, 1970~80, 「農村經濟」 5 (4), 1982. 12, pp. 72~89.
- 李榮萬, 「農家の 資金需要 推定模型에 관한 研究」, 東國大 碩士學位論文, 1978.
- 李正馥, “農協相互金融의 成長과 課題”, 「農協調查月報」, 農協中央會, 1983. 12, pp. 1~8.
- 李貞煥, “農家의 金融資金 需要豫測”, 「農村經濟」 4 (2), KREI, 1981. 6, pp. 30~38.
- \_\_\_\_\_, “農業金融의 再編成 方向”, 「農村經濟」 4 (1), KREI, 1981. 3, pp. 26~32.
- 李貞煥·丁安聲, “農家金融市場의 資金循環 構造와 作動”, 「農村經濟」 4 (3), 1981. 9, KREI, pp. 81~89.
- 丁安聲, 「農業金融 制度改善方案」, KREI, 1980.
- 鄭雲燦 “公金融市場과 私金融市場”, 「金融」 29 (11), 全國銀行聯合會, 1982
- 鄭鎰玉, “우리나라 農家의 資金借入 및 債還構造 分析”, 「農協調查月報」

- 28(7), KACF, 1983. 7.
- 崔世均,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構造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5次年度 評價報告書, 1983. 12.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2~1985.
- \_\_\_\_\_, 「農業金融便覽」, 1985,
- 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金融」, 1984.
- \_\_\_\_\_, 「農家信用 實態調查」, 1983.
- \_\_\_\_\_, 「農業金融의 現況과 改善方案」, 1982.
- \_\_\_\_\_, 「相互金融의 現況과 發展過程」, 1981.
- \_\_\_\_\_, 「相互金融에 관한 調査」, 1979.
- 農協中央會, 賯蓄部, 「相互金融의 現況과 發展過程」(1969~1981), 1981.
- 全國銀行聯合會, 「金融革新과 金融改革」, 1985.
- \_\_\_\_\_, 「銀行產業의 効率性 分析과 効率化 方案」, 1985.
- 加藤 讓, 「農業發展と政策金融」, 藥游書房, 1985.
- 小野智昭, “高度成長期에 있어서 農林中央金庫의 資金調達 運用構造  
－餘裕資金 運用을 對象으로 하고－”, 「農經論業」제 42 칡, 北海  
道大學, 1986. 2.
- 新野幸次郎, 伊東光晴編, 「寡占經濟論」, 有斐閣雙書, 1970.
- 鈴木博編, 「農業金融論」, 昭和後期農業 問題論集, 19, 農山漁村文化協會,  
1986.
- 竹中久二雄·日暮賢司, 「營農に役つ農業金融の基礎と實際」, 藥游書房,  
1981.
- 農林漁業制度金融研究會編, 「農林漁業制度金融の現狀と制度改正ポイント」,  
1985.

研究報告 183

農家의 中長期金融 資金 需要分析

---

1989년 9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記 1979年 5月 25日 第 5 - 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

出處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